夕刊 朝鮮日報
本紙朝夕刊合八面

獨墺關係激化하야 武力抗爭展開乎

墺國은軍費擴大에努力

英佛伊三國은支持形勢

【倫敦發電】『히틀러』政府樹立以來獨墺兩國의對立關係가 더욱激化하야 全歐羅巴國際政局에 暗影을投하고잇드니最近『바바리아』軍의一部가墺太利東部國境을威脅하야首府維也納을驚駭케한事實도잇서兩國의反目은드듸여武力을背景으로한抗爭에까지이르게되엿다當地에到達한信憑할만한側의報道에依하면墺太利政府는此情勢에善處키爲하야內外的나치쓰威脅에對抗하야墺太利의獨立을確保함에는墺國의現國防軍의實力으로는不充分하다고하야軍備擴大에極力努力하는바五千乃至二萬의軍隊增加를計劃하고잇다墺太利首相『쪼프쓰』氏는世界經濟會議에首席全權으로倫敦에赴하야以來列國을勸說하야墺太利軍備擴張에支持하기를要請하엿다佛蘭西는現在贊助의빗출보이고잇고英國과伊太利는아직明確한意思는업스나『나치쓰』의反墺宣傳에는기우러지지안코 結局墺太利支持에기우러지리라고觀測된다

『싼듸』氏夫妻被逮

不服從運動開始를主張하야 印度의反英運動激化乎

【電通아메다밧三十一日發】印度의反英抗爭은 北部印度의形勢惡化와同時에 全國的으로瀰漫할兆候가잇다 聖雄『깐듸』氏는再次蹶起를決意하고 三十一日曉를期하야當地를出發하야不觸階級 絕對禁酒制撤廢及各個人의反英不服從運動開始를主張하야『아메다밧』地方의 都邑을巡行하기爲하야爲般準備를完整하고잇든바 三十一日午前一時三十五分突然英國官憲에게 『깐듸』氏夫妻는三十一名의信者와가티逮捕되엿다 『깐듸』氏의逮捕로全印度의反英抗爭은 再次激化하리라고觀測되여잇다

北中戰區接收 順調로進行

【電通東京一日發】天津方面으로부터의 確實한側의情報에依하면 北中의戰區接收는大略順調로終了하야 七月二十七日에는東路 呂黎를前二十八日에는密雲 懷柔 薊縣의各縣을完全히中國側에 引繼하고치안한것中重要한것은 永安 遷安 山海關의中間地區를 남길뿐이라 殘餘된地區는 匪賊이아즉蠢動하고잇는外에이나 中國側에서目下接收具體策은 考究中임으로不接收를終了할것으로 豫想된다 또接收中最大難關이잇슬리라하든○○軍의處置도 大連會議交涉結果 大體順調로進行하야 七月二十日頃부터約四千의○○軍이警察에 改編된모양이다

英國爆擊機에 『파죨』族이反擊

一日英軍爆擊開始?

【聯合심라三十一日發】反英氣運이濃厚하엿다는 上部印度『파죨』地方에서는 一日英空軍機가反英擾亂者引渡要求에不應하야一日拂曉를期하야爆擊한다는 通信筒을投下하엿든바이에對하야『파죨』族은小銃으로 一齊射擊하야이것을追返하엿다 一方印度軍隊는『아프가니스탄』國境附近上部『모―만드』族으로부터襲擊脅威를밧고잇는『하린자이』族援助次『단도』로進出하엿다

對滿國策은 自主的强硬方針

外相新大使에게訓令

【聯合東京三十一日發】菱刈新任駐滿特命全權大使는三十一日午前十時外務省에內田外相을訪問하고 新任人事를述하고 重光次官、谷、天羽、東亞各局部長과同席하야 對滿國策의根本方針에關하야 約一時四十分에亘하야重要懇談을遂한結果 對滿國策은旣定方針대로 自主的으로堅持하야進行하기로되고 內田外相으로부터左의主旨의訓令을授與하엿다

一、對滿國策은 全部既定方針에基하야 自主的强硬方針으로臨할것

一、對滿政策調整에對하여는 從來대로 外務、軍部及關係省과充分한聯絡下에行할것

一、對滿政策의 完全한遂行을爲하야必要하는 滿洲國獨立守備隊撤廢의件及 滿鐵局設置의件에關하여는 外務와軍部가協力하야 實現을圖할것

一、新大使는 各方面에人事를完了하고現地狀況에鑑하야 可及的速히任地로 出發할것

獨逸航空會社 新銳機購入

【伯林發】『히틀러』獨裁政府가國力發展에 全力量을傾注하고잇는바 그主旨를體得한獨逸最大民間 航空會社『루프트한자』는 一旦有事之秋에는軍用으로代할飛行機를 擴充하기에努力하고잇다 現在同會社가保有하고잇는飛行機는 百七十臺로 大型旅客機를비롯하야小型高速度郵便飛行機를網羅하고잇는데 더욱邇近한將來에三百萬圓을投하야最新型超高速度機를購入할計劃을세웟다六個月前에도三百萬圓으로新型機를購入하고舊式飛行機는修繕하야 現代的設備를施하엿슴으로도 其發展은實로迅速하다 그리고獨逸은『베르사이유』條約의所謂『베사이유』條約의結果로 軍用飛行機를建造하거나또는此를保有함을不許하엿스나 用意周到한獨逸인만콤今般注文한 飛行機는速力에잇서英國軍用機를凌駕하는同時에多數의爆藥을搭載할수잇다고한다例하면 目下建造中인發動機三臺附旅客輸送機十二臺는一時間百七十哩의速力을發揮하고乘客十五人外에巨大한重量의物品을運搬할수잇다고한다其飛行機는모도獨逸製이나發動機만은米國에서設計한『뿌렛앤드홧트니』의特許로 獨逸에서製造되는것이다 何如든不遠한將來에獨逸은萬一의境遇에는軍用에使用할수잇는世界最大、最速의民間飛行機를所有하게될것이다

北鐵交涉 又復無期延期

【聯合東京三十一日發】北鐵交涉은來二日第六次會議를開催할豫定이엿스나滿洲國側이大橋外交次長이故武藤元帥의遺骸를出迎키爲하야三十一日夜門司로向하엿슴으로二日의正式會議는또다시無期로延期하게되얏다

馮系各配備로 平綏線危險形勢

滿洲國軍○○進擊開始

【聯合北平三十一日發】方振武 古鴻昌、劉桂堂各軍은各其張家口赤城에配備하야平綏線擾亂을劃策하고잇슴으로中央政府의馮玉祥討伐軍도 龐炳勛孫殿英其他中央支持派와갓치平綏線을察哈爾省으로向하야進擊하는中이다 一方馮玉祥의國境擾亂行動에奮起한 滿洲國軍은討伐準備가完了되엿슴으로其先鋒인 李朱深軍은二十九日부터○○으로向하야進擊을開始하엿다

米洲局新設 外務省積極進出

【聯合東京三十一日發】內田外相은 聯盟脫退後日本非常時外交遂行을爲하야 明年度豫算에 種種積極政策을計上하엿는데 特히日本人의海外進出을必要로 現在通商局第三課를局으로昇格하고 移民事務를處理케하기로하고 이것을伊國政府制度에模倣하야當初在外日本人局으로하려하엿스나 그것은日우直譯이라는理由와 邦人의海外進出地는主로 中南米方面이라는理由로 此를米洲局이라고命名하기로決定하엿다 더욱滿洲國關係政策을遂行키爲하야 (나)로滿蒙局을 設하려고하엿스나 右名稱에對하여는 拓務省의反對도잇고 對外關係도考慮한結果 滿洲局으로決定하엿다

關東軍隊制는 中間案採擇乎

【電通東京三十一日發】現在關東軍隊制는 戰時에準한應急的의것인바 軍部當局에서는日滿議定書第二項에基하야 恒久的體制로變更하야 大體本年度中에實施하기로하고 目下陸軍省側은衛戍地와 部隊의家族關係其他主로軍政上의 立場에서全出動部隊의交代駐箚制度를 主張하고잇는데對하야 參謀本部側은統帥의立場에서 全出動部隊의永久駐屯部隊制를 固執하야讓步치안음으로 決定을엇기外지는 아직相當한日子를要할모양으로或은 當初計劃대로 一部를交代駐箚師團으로하고 一部를永久駐屯部隊로하는案이成立될는지도모른다

海軍特別大演習 一日부터第二期戰

【電通東京三十一日發】六月一日부터南方海上에서擧行하는海軍特別大演習은 二個月에亘한第一期演習을終了하고八月一日부터 드듸어第二期演習으로드러가八月中旬頃에는 陛下의行幸을仰하야日本海軍의精銳를모아偉容을 發揮하기로되엿다 第三期는八月中旬以後日本海軍의全兵力을參加식혀擧行할터인데 其規模에잇서서는未曾有의것이라 한다

總督府豫算總額 二億七千萬圓

明年度豫算 各局案에對한財務局의査定은 五六日頃外지의全部終了의 豫定인데 이에依하야九年度豫算案의大綱이決定될것이며 그리고는財務局의數字的査定이남어잇슬뿐인데各局의新規事業中主要되는것만 農林局의棉花 緬羊副業獎勵 畑作增進 肥料統制 米穀統制 農村振興 砂防計劃 殖産局의鑛金鑛資源調査 水産振興 工業振興策 法務局의少年刑務所增設 刑務所大擴張 內務局의道路河川港灣等의土木事業 學務局의精神作興運動에要할經費 古蹟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費 鐵道局의新線計劃 專賣局의鹽田擴張 遞信局의北鮮航空路開設等槪算四千萬圓을不下할것이며 이에 各局의基準豫算二億二千八百萬圓을加하면總計二億七千萬圓左右가되여 前例업는膨大한豫算이될것인데 이를財務局에서如何히按配할것인지는 八月中에査定을終하고 九月上旬林財務局長 水田司計課長이携行東上大藏當局과折衝을거듭할作定인데 結局公債發行額은四千萬圓程度가될것이다

米國態度不變하면 會議再開도無効

經濟會議休會에對한外紙論調 日本外務當局은悲觀

【電通東京三十一日發】經濟會議의失敗에 對하야 英、米側의 新聞論調에關하야松平出淵兩大使의報告를 綜合하여보면 모도會議의 失敗를認定하고其原因으로 各國政策의不一致와互讓精神이缺如하든것과 會議準備가不充分하엿다는것을擧하고 今秋會議再開에 對하야米國側은歐洲各國의態度가改變되지안으면 無効라고하고 英國側은米國의 政策이今回와갓치不動不變이라고하면 無効라고 相互非難하고잇스나 右에對하야外務當局은 經濟會議의 失敗는 (一)二大國의 利己的態度에서 起因한것 (二)老大한領土를所有한大國이 其經濟的資源과 廣汎한市場에對하야極端的閉鎖主義及他國에 對한非妥協態度를繼續하야覺醒치안는限아모리國際經濟會議를開催하드라도 到底히效果업슬것이다라는見解로 今秋의再會議를悲觀하고잇다

新規要求總額 十三億圓豫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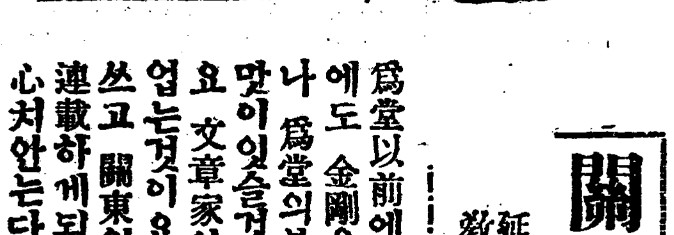
【電通東京三十一日發】明年度一般會計豫算의槪算提出期는三十一日인바今年은各省이다豫想外에速히提出하야三十一日外지陸軍省 海軍省外務省文部省遞信省 司法省의六省에서槪算의 提出이잇다其他各省亦二三日中에는 거의提出하게될터임으로 大藏省主計局은意外로早速査定에着手하게될豫定이다各省의新規要求額은이미判明된것을보면未決定의農林大藏拓務의三省을除外하고 九億六千二百萬圓이되고이에 農林 拓務兩省의新規事業約一億圓과大藏省의 國債費 爲替差損金等約一億圓以上을加하야 明年度新規要求總額은十三億圓程度에達할豫定이다 (單位千圓)

陸軍省	三三〇、〇〇〇
海軍省	三七〇、〇〇〇
內務省	一八四、七五〇
商工省	二七、九七〇
外務省	一九、五〇〇
文部省	一三、八二〇
遞信省	一三、一八〇
司法省	三、七〇〇

外務省豫算 三千七百萬圓

【電通東京一日發】外務省九年度豫算案은 三十一日午後의省議에서確定 內田外相의決裁를바다大藏省에送附되엿는데總額約三千七百萬圓으로內容은經常部 二千二百萬圓 臨時部 一千五百萬圓 內新規事業은總額二千萬圓으로內容은如左(單位千圓)

滿洲事件費	八、〇〇〇
爲替差損金	六、〇〇〇
新規項目	八、〇五〇
內譯	
國際文化局	一、七〇〇
滿蒙局	一〇〇
海外日本人局	一〇〇
公使館五個所設置費 (아뽀가니스탄、아비씨니아、콜롬비아、埃及、南阿)	七五〇
領事館分館九個所設置費 (承德、黑河、綏芬河、通遼、洮南、가리치、멜르、베렌、다완)	八〇〇
歐米局一課增設	五〇
通商振興費	一、五〇〇
電信事務改良費	一、〇〇〇
補充費補助費의增	五〇〇



新 金剛山探勝記

關東海山錄

延專教授 爲堂 鄭寅普

爲堂以前에 金剛을말한이가만코 爲堂以後에도 金剛을말할이가 應當만흘것이다 그러나 爲堂의붓으로된 金剛――거기는獨特한맛이잇슬것을 期待할수잇다 詩人이요學者요 文章家인 爲堂의 文名은 呶呶할必要가업는것이요 이제先生이 三伏의더위를무릅쓰고 關東의 海山을 涉獵한記錄을 紙上에連載하게되엿스니 絕對의 滌暑讀物임을 疑心치안는다。

明日부터 本紙上에連載

拓務省豫算 方針決定

三千五百萬圓

【聯合東京三十一日發】拓務省所管의 來年度豫算省議는三十一日午前午後에亘하야 審議를重한結果如左한 編成의根本方針及豫算案의大綱을 決定午後六時半散會하엿다

一、九年度豫算은 拓務省存立의使命達成에特히留意할것

一、新事態의 要求에應하야 第一、本省의組織을 整備充實하고 外地統治關係의 改善에寄與하게할것

第二、在滿各種事業에對한 助成及監督의機構를 整備擴大하고 滿蒙經濟建設에 寄與하게할것

第三、移植民及海外拓殖事業의擴大를圖하고 海外政策의實現에寄與하게할것

豫算總額 (單位千圓) 三五、八〇〇

經常部 五、三〇〇

臨時部 (各外地補充金을包含) 三三、五〇〇

海軍所管豫算 六億八千萬圓

【聯合東京三十一日發】海軍省所管九年度豫算은 三十一日大藏省에廻附되엿는데 內容은如左

一、基本豫算額 二億五千萬圓

二、新規要求額 四億三千萬圓

計 六億八千萬圓

또陸軍 外務兩省所管豫算은三十一日大藏省에提出되엿다

植民地人事移動 暗礁에逢着

拓務省當局은尙今樂觀

【電通一日東京電話】永井拓相이提案한 植民地人事異動案에對하야南遞相及政友會閣僚가反對意見을갓고 缺員補充程度의人事異動은반드시 反對는안이나 各植民地機關에亘한大異動은此際反對한다고主張함으로永井拓相도 一日定例閣議에는 提出하기外지는 이르지못하엿다 그리하야 植民地人事異動은非常히紛糾하여와슴으로 永井拓相은 齋藤首相 堀切書記官長과會見하고 其善後策에對하야密議하엿다

【電通東京一日發至急報】植民地人事異動에關한永井拓相의原案은南遞相、○山文相의反對로一日閣議에上程되지못하엿다 兩相의諒解는不可能하지안음으로堀切書記官長의斡旋으로兩相이다곳同意를與하게되엿슴으로 次回에上程되리라고拓務當局은 樂觀하고잇다

四川動亂의禍因인 群小軍閥現勢 (二)

附 戰爭中에侵入한共產軍

▼……川陝邊防督辦 劉存厚의勢力……▲

劉存厚(四川簡陽縣人日本陸士第六步兵科字積之四十九川陝邊防督辦)

第一師長 劉壁乾(保定)統約四千
第二師長 魏邦文(波底)同約五千
路司令 余光武(保定)同千餘
路司令 鄧錫銘
同 廖震
同 汪鑄龍
同 張烈光
警衛司令 廖震(波底)統千餘

國民四年頃四川督軍兼省長職에잇다가 十三年楊森과代替하야以來邊防督辦으로達縣 開江 宣漢 城口 萬源等五縣의地盤을領有하엿스나 別로發展이업다

▼……田頌堯의 現有地盤……▲

田頌堯(四川簡陽縣)第二十九軍長、副軍長 孫德操

第一師長 董長安(統約八千)
第一旅長 [illegible]如璽
第二同 楊哲遠
第三同 羅紹琳
第二師長 曾憲棟(統七千餘)
第四旅長 稅鍾靑
第五同 曾起戎
第六同 胡開陞
第三師長 羅迺璿
第七旅長 鍾炳鍾
第八同 鄧李朝
第九同 王銘章
第四師長 劉鼎基
第十旅長 王禹昆
第十一同 張還福
第十二同 黃正貴
獨三師長 葉濟時
旅長 馬光
同 [illegible]
其他
第一路司令 李煒如
第二同 劉漢雄
第三同 何德傑
第四同 楊[illegible]
獨立旅旅長 蔡玉龍
西北屯殖司令 孫德操

▼……共產軍에게 蠶食된區域……▲

田의現有地盤(四川北部廿七縣中數縣은 共產軍에게 占領되엿다) 儀隴 西充 巴中 南江 通江 閬中 南部 蒼溪 營山 射洪 三臺 安縣 梓潼 羅江 綿陽 什邡 江油 平武 彰明 鹽亭 中江 蓬溪 北川 綿竹 成都(鄧錫侯와共同駐防)

田頌堯軍은 昨秋兩劉戰爭에參加하야相當한 打擊을바든後南江 通江 巴中等數縣을 共產軍에게占領되야 四川軍閥中劉存厚와가장만히 共產軍의發威를感하고잇다 田은今年一月川陝邊區剿匪督辦에任命되야閬中을本據로共產軍討伐中이엿스나討伐은커녕 도리어漸次그地盤의蠶食을當하엿다 六月中旬廣元이徐向前軍에게 占領되자그는蔣介石에게 剿匪督辦辭職을 哀請하엿다 共產討伐의成績如何는 田의將來를 左右할것으로 [illegible]

▼……共產軍의 四川省侵入……▲

[illegible]한바가잇다 昨秋蔣介石의不安한軍閥混戰을惹起한 共產軍徐向前軍이四川으로드러갓다 即一九三二年九月二十日河南安徽湖北의三省邊區의要地金家寨이 中央軍衛立煌軍의攻擊으로 드듸여陷落되자 徐向前은第四方面軍의一部를 引率하고 湖北으로부터 河南을 經過하야(順路는黃陂 李家寨 黃陂 廣水 棗陽 新野 鄧州 淅川) 十一月初旬陝西로들어가고 商南 商縣을지나 秦嶺으로드러가고 十一月下旬午子鎭에서 討伐軍에게相當한損害를맛고十二月初旬佛坪洋縣을지나中旬에四川으로 드러갓다 湖北出發以來 不過三個月間에實로四省을通過하엿는데그行程은二千二百哩에達한다 四川으로드러간徐向前軍은田頌堯의 地盤으로突入하야十二月廿六日南江을占領하고 其後로漸次勢力을擴大하야 約半年間에通江 萬源城口를占領하고 六月初旬에는田頌堯와 數回에亘하야 爭奪戰을繼續하든 巴中도完全히 占領하고더욱 南進하야 廣元을 陷落하엿다 即 徐軍은最近의 軍閥混戰을 好機로 大大的으로 發展하라는 指令을바든듯 行動으로 하야 六月來로活潑한 東江에잇는主力은 六月中旬以來廣元方面으로 進出하야 激戰한後田軍旅의 轉向과陝西로부터 增派되엿든旅王志遠部가 西方으로退却하기때문에 十九日頃에는完全히 廣元을占領하고 더욱嘉陵江을 南下하야 閬中을攻擊하엿다 一方巴中에잇든部隊는 營山縣으로進擊하고 二十日頃에는儀隴을隔하기三十里되는地點에達하엿스므로 營山縣城도危險에瀕하게되엿다 그럼으로附近의城市에는 避難民이殺到하야 前記各縣은勿論 其南部地方에잇든 外人宣敎師는 모도重慶으로撤去하엿다

▼……赤色國際陸路의 開拓을劃策……▲

田頌堯는 共匪軍과의戰鬪로이미十數縣의地盤을喪失하고 去月十九日附로 蔣介石에게對하야川陝邊防剿匪督辦辭任과同時에 目下陝西에잇는中央軍第一師胡宗南部의 廣元方面急援을 哀請하엿다 別個報道에依하면 成都東北約百五十支里(三合)附近에도 共產軍이 出現하야 嘉陵道全道가 赤化되려는情勢에잇고 東川道北部의城口萬源漢縣의 徐軍第三軍領德基는 開江附近土匪를煽動하야南下하고 萬縣方面에서 湘鄂軍과聯絡코자하야劉湘軍과衝突하고 北方으로退却하엿든바 同方面의徐軍은北으로넘어湘北과의 聯絡을目標로不絕히 行動하고잇스며同時에陝西에서甘肅을 經由하야 이미露西亞勢力範圍로化하고잇는新疆에通하는 國際陸路開拓을企圖하고잇다한다

陸軍豫算槪算確定 四億二千萬圓

大藏省에廻付

【電通東京三十一日發】滿洲事件費를除外한九年度陸軍豫算槪算은如左히確定되여三十一日午後二時大藏省에廻付하엿다 (單位千圓)

一、經常豫算 約二一六、〇〇〇
一、新規要求 資材整備費 約一八〇、〇〇〇
一、燃料研究費 約五、〇〇〇
一、兵役審議會決定事項實施費 約五、〇〇〇
一、其他各種新規要求 計 約四二四、〇〇〇

또滿洲事件費는今年九月頃의滿洲情勢로보아決定되기로되여 不可不約一億六千萬圓을見積額으로하야大藏省에回付하엿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去二十九日仁川別莊으로갓든宇垣總督은一日午前八時五十五分夫人同伴歸京하엿는데 다시夕刻仁川으로갈터

八面鋒

◇본라고의占쟁이가 힛틀러의運命을豫言하야曰、一九三四年外지가 全盛時代 一九三六年에는 內亂이나나 平定되고 一九四六年에運이 기울러 外國과重大危機가醸生된다고

◇요새가티 물물은世上에서十年天下를維持한다하니 卦로는大吉 褐色獨裁한개適로

◇葡萄酒도生産高이以上 生産過剩죽에 한목아니틀란法이업스렷다

◇리스본調査에依하면 前年보다七百萬암哥增産으로 그야말로 술의洪水亂을뭇만다고

◇

潭陽水災被害額 百萬餘圓으로概算
死傷九五、百餘乞人行方不明
田畓流失만千餘町步

【潭陽】 우량 삼백미리라는 기록을 남기고 담양군을휩쓸던대홍수의 피해가 이제야겨우 판명되여 전손해액은 백만원으로추정된다고한다 아직도남은 경우들은 매일파가티 우리소래와함께 담양시민의 가슴을놀라게하고잇다한다

▲人畜死傷九五 ▲百餘乞人罹行方不明 ▲住家建物被害 流失全潰半潰 七〇〇戶 ▲床上下浸水 一一〇〇 ▲要救濟者 三〇〇〇名戶數로 五〇〇戶 ▲田畓流失埋沒 一〇〇〇町步 ▲田畓浸水 二二〇〇町步 ▲作物被害額 二十萬圓 ▲道路破損埋沒流失 四千間餘 ▲橋梁破損流失 百個所餘 ▲山崩岩壞 三十個所餘 ▲河川洪水 氾濫面積(田畓其他) 三千町步餘 ▲農作物被害面積(田畓其他) 一五〇〇町步餘 △農作物被害額 約二十萬圓 △工作物被害額(道路橋梁堤坊鐵道) 約十萬圓 △土地被害(流失田畓、埋沒其他) 約四十五萬圓 △家屋被害(流失、全潰、半潰浸水) 約三萬五千圓 △家畜被害(牛馬豚其他) 二百圓 △潭陽被害全總額 約百萬圓 △尤甚地 水北(開東里井中里黃金里 三部落은全滅狀態) 大田面, 月山面, 金城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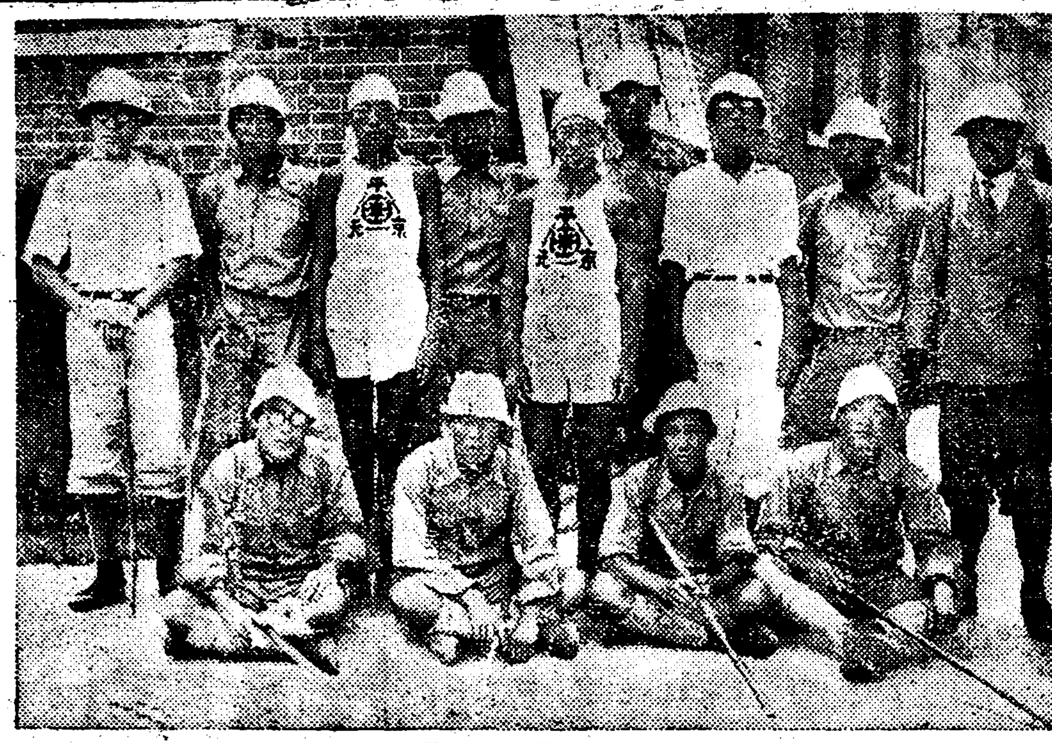
松汀水組事務所에 百餘農民이殺到
水害는當해도灌漑水는업다
修理工事直施를要求

【松汀】 호남선 송정리지방(湖南線松汀里地方) 금번 수해로인하야피해가만타함은누차보도하바어니와 송정리 수리조합은 그피해가더욱 심하다고한다 그수리조합은 원래공사가 불완전한관계로 조금한비에도 제방이결괴(決潰)하여 벌서 수차나막대한경비를 들여 수축하엿든바 공사할때마다몽리구역내 작인(作人)들은 그완전한 공사를 진정하여왓다고한다 그탯든것이 금번수해에는또다시 전구역중(全區域中)에 오십구개소나 결괴하야 전답은물론이요 밀려온물로인하야 가옥이 침수괴멸된초락이한두군데가아니엿다고한다 더구나익사갓보는(狂洑)가 잇는데는큰내에다가겨우가마니로막어노흐니 물만 조금불어도터집으로 작인은물론일반인 조차 수리조합의처치를부당하게알고잇는중금번에또공사비를약사천여원이나들여 복구공사를 한다는데 멋번수축 하여도맛찬가지가되는 송정수리조합에 직접리해를가진 일반작인은불평이 자못듭든중 금삼십일일정 오에는 백여명 농민이조합사무소로쇄도하야 물을내라고 소리를지르고 야단친일이 잇섯든바그 리유인즉 금번 수해로조합구역내 평리보(平里洑)가결궤 하야물이전부 빈데로만 흐르고논으로는 조금도 흐르지를안하야서 요새 이삼일내의 더위에는이전부 말너아무리 속히복구공사를 한다드래도 그안에벼가 말너죽을 우려가잇서 동수조몽리구역내 농민백여명이 쇄두하야 즉시 공사 하기를 진정 하엿든바 수조당국은 공사설계상 즉시공사를 착수할수업다하야 이에극분한농민들이 총으로몰려가서이면소동을이르켯다는데 금번가튼 불날니에 물이귀하야 소동이나는것은 송정수조에서만 볼수잇는진사실이라고이약이거리가되여잇다

今番暴風雨와 龍山方面被害

이십칠일저녁부터의삼일간폭풍우에 경성시내에는 제일피해가 심한곳이룡산(龍山)부근인데작일오후이시까지에 판명된 것은 다음과갓다한다

浸水二一八戶、其他建物流失三四戶 畓浸水 二十町步 倒壞家屋 二戶 負傷者 二名



卅一日本社에到着한 平壤崇仁商業徒步隊

千七百睡眠金礦에 將下할整理鐵槌
權利만弄絡하는徒輩는排除
黃金狂群에게一頂針

작금량년에 금광열이 대단히 팽창하야 가는곳마다 광산발견에눈이 어두워 단아는사람이 만코총독부에도 광구출원을 하려오는사람이 만타 그러나그중에는확실히 상당한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려는것이 안이고 일종의권리를 어드려고 하던가 심한자는 권리를어더가지고 사긔행동을 하는것까지잇다 그래서 광구의권리는 어더가지고도 조금도 발굴은하지안코 그대로 묵어두는것도 만타 물론개중에는 채산관계기타의 부득이한사정이잇서 광산을그대로 묵여두는것도 만으나 그러치안은것도 만흠으로 총독부광무과 에서는 최근이러한 수면상태에잇는 광산에대한 대정리를할 방침을 가지고 잇다 즉조선광업령제이십구조에 의하면 광업설정등록후에 일년 이내에 착수를안턴가 일단착수하엿다가도 일년이상 휴업을하는것은 취소한다는 조문이잇서 이에의하여취소할수잇다 그런데이상조문에 대하야 지난이월에새로 발표된개정광업령 시행세측에는 만일이상의 조문에저촉될때는 리유서를 제출하라는규정이 잇다그러나 리유를제출치도안코 일년이상 묵여두는것이 만흠으로 단연광업권을 취소하겟다는 방침을 세우기로 되엿다 현재수면광구는 광구총수약삼천구역중 약일천칠백구역으로 인부 극소수는 휴업리유서를 제출한것이 잇스나 대부분은리유업시 쉬이고잇서 당연히이상의 조문에저촉되는것이라하며 또리유가 부당한것도 역시취소처분을 밧게될터이라고한다

河床에起居든乞人 百五十名行衛不明
下流에서는尚今도屍體續出
悽絶慘極한潭陽水災

【潭陽서申特派員發】 이번수재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경계인 순창(淳昌)과 담양(潭陽)의두곳이 가장심하다함은 누차보도하얏거니와 실제로 피해지를답사하면 전번경상남도의 수재이상의 심한정도이다 경상도지방은 물의형세가 완만(緩漫)하얏든까닭에물이들기도 천천이들고 빠지기도 천천이빠저서 피해의범위는광범하나 여지업시 패여나간곳은적으되 이번 전남전북의 수재는 그피해지가모다 산간의궁벽한 지방인까닭에 수세가급하야서 물이들기도 살(矢)보다 빨랏고 이와가티급한수세로 말미암어 피해된곳은 심하면 집지엿든터전까지 형체나마 차저볼수업시 패여나아가서 물바진지금에도 오히려보는자의모골이 송연한참담한잔해(殘骸)를남기고잇다

◇ 담양읍에서는 경찰서나 면사무소의 조사에의하면 인명의피해는 사오인에불과한드시 되여잇스나 실상이 곳주민들의 이야기를 드르면 관방제(官防堤)가 터지며 시장통을 비롯한물결에 우육관매시장의 양철건물이 떠나기는 이십륙일 새벽다섯시와여섯시의 사이의 일이엇는데 이지방은 원래부요한 사람이만히살어서 그들에게걸식을하고 걸인(乞人)들이 만히모혀서할수업시 멋멋부호들이 돌려가며서 밥을지여그들을 주거(住居)가업는그들임으로 멋명이라는 자세한통계는 업스되 그들에게평시에식사를 공급하든 모씨의말을들으면 한버에대두(大斗)한말의쌀로 밥을지어서 한명에게주먹만큼식 뭉처주며밥으로 한맹이식을주는데도 그것 한맘밥이모자라는것을 보면일백 오십명은넘어이 되리라고 한다이와가치만흔 걸인들은 요사이일긔가더웅으로 우육시장 압시여얀자갈밧(砂利場)에서로숙을하여오든걸인데 자다말고 비가오서모다 우육관매점의 건봉속으로비를 피하엿더니 별안간시장이쓸리는 바람에피신할 곳을일코허겁지겁 하다가그중에 나이만코기운 줍잇는사람 사오명은 죽을힘을다하야집웅으로올라가고그러치못한자는미처집웅에도 못올라가고 그대로 형적이업서젓고 집웅에서 소리를처주원을 청하는 사오인의걸인들도 필경 건물이 떠나가는동에 그와함께운명을가치하야 가여운 그들은 간얄핀 목숨을 홍수에 도태(淘汰)당하야버리고 지금은비개이고 물세인뒤에 엇만담양시가를 거니는걸인은 불과십여인밧게 남지안엇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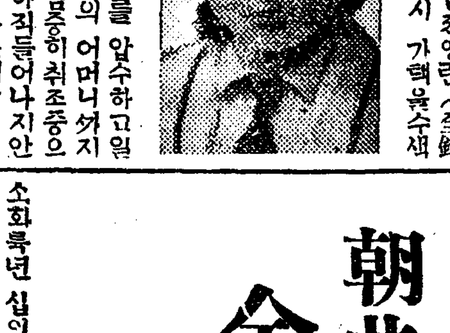
◇ 이와가치 물란리가 생기고보니 사람이 모다제목숨을 살고저가 죽음을건지기위하야 눈이 벌건판임으로 남이죽는지마는지 그것을눈여겨본 사람은 업다고하나 물이세인다음에 하류지방에서는 계속하야시체가 발견되고 잇스니봉산면대신(鳳山面大新)이라는곳의 압내에서는 시체썩는냄새가 동천을하야서 그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건구역을멋모르고한번지난사람은건구역을착고하는형편이로되시체를 눈으로 볼수업는것을보면 내바닥에무친것이 틀림업다고한다그남아시체가 한두개가든면 그냥새나는것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할터인데 큰커일에에 악취가 발산하는것을보면 멋십개의시체가 무치엇는지모르겟다고말하는사람도 잇스며 동면삼지리(三支里)압헤서는 시체한개가 발견되엿고 수북면개동리(水北面東里)내가에서는시체네개가 발견되고 동면정중리(井中里)냇가에서는 시체여섯개가 발견되얏스며 동면황금리(黃金里) 압내가에서는 세개가 발견되얏는데 주민의 죽은자가별로업다고 관명되엿는데서 시체가속속 발견됨은 생각할것업시 걸인들의죽엄이분명한것이라한다

◇ 담양읍내를 싸고도든 관방둑은리조국초적부터 잇서온 것으로담양읍에대하야서는 그야말로 생명선이엇다고한다비권에는이지방의 혼한소산인대나무를 심어매마조 결어가지고 해마다돌려처서 방천을보호해왓는데 지금으로부터 약육십년전에 황종수(黃鍾洙)라는 분이 담양부사로와서 그것을다뜨더치우고 석축을완전히 하여노흔다음에 지금까지아모 탈이업섯는데 이번에그것이 터진것을보면 실로륙십년래의 큰홍수엿다고한다

興南에反戰세라
工場地帶에數千枚를撒布하야
警察은冒雨코猛活動

【興南】 흥남경찰서에서는지난이십구일 폭풍우가 천지를뒤집을듯이 퍼붓는것도 불구하고 경관수십명이 사복을 정제하고 흥남일대에 버려저 엄중경계를 하엿다 그내용을탐문한대로 소개하면 팔월일일반전긔렴일(反戰紀念日)을압두고 내용이극히 불온한 조선문과일본문의 격문 수천매를 천긔리(天機里)와 구룡리(九龍里)에 지난 이십팔일 산포하야 그범인을 엄중수사하는중이라한다

『카페』樂園會舘에서 赤色女給을檢擧
當者는全鈴蘭이라는評判少女
反戰데ー警戒中에



팔월일일의반전(反戰)데ー를압두고 시내각경찰은 비상히긴장되여잇든바 종로경찰서에서는 지난삼십일일 카페ー 락원회관(樂園會舘)의녀급전영란(全鈴蘭)을검거하는동시 가택수색하야 다수한문서를 압수하고일일아츰에는 영란의 어머니까지를소환하야목하엄중히 취조중의로사건의내용은아직들어나지안엇스나본래려란이라는녀급은어려슬때부터 소년군의 총지휘장 조철호(趙喆鎬) 씨를딸하긔근구제금을 모집하기위하야 북간도에까지 다녀온일까지 잇섯스며중졸찰로며 소리잘하기로도 유명하다 극게(劇界)에서도 오년간이나 지버다가부닥기는 생활란에엇절수업서 오랜동물니 휘황하는카페에 들어가 이래어머니와동생을 위하야 괴로운생활을계속하엿다 방거리에 피는꼿이되여 못남자들의시달림을 밧는괴로운 생활을하고 잇스나그는틈틈이사상서적(思想書籍)을 탐독하야 소위적색녀급(赤色女給)이란평판까지듯든녀자이라고한다

朝共再建協議事件 金大鳳等公判에
豫審廻附된지一年八個月만에
一名은保釋中에病死

소화륙년 십이월 이십륙일에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삼포(森浦) 검사의 손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긔소되어 동법원제일예심계(第一豫審係)로 넘어간 조선공산당재건협의(朝鮮共産黨再建協議)사건은 이래동 예심협(脇)판사의 손에서 취조를진행해오든중 예심으로 넘어간지일년팔개월만에 오늘에야 종결되야 그사건관계자 김대봉(金大鳳)등외 긔네명은 유죄로결정되어 동법원공판으로 회부되엇다 처음 그사건관계자로 예심으로 회부된 관계자는 여섯명이엇는데 그중에태극(太極)한명은 보석되어잇다가 병사하얏고 또 한명 박태선(朴泰善)은 분리심리하기로되엿다 그도 일간에 예심이종결되리라한다

▲公判廻付者姓名

▲本籍 江原道襄陽郡 露國名 미노쉐프 金大鳳(三四)

▲本籍 江原道襄陽郡 露國名 그로모브 李建鎬(三三)

▲本籍蘇聯露國浦鹽斯德新韓村 露國名 그와노브 一名越星 金光恩(三七)

▲本籍 平北義州郡 露國名 이고딘 金致坤(三二)

咸安事件重大化 馬山警官隊應援
一日午后一時現場急行

【馬山支局特電】 함안(咸安)수리조합 구내농민문제는 더욱분규하야 대소동을 일으켯슴으로 일일오후한시반에 천천(淺川)보안계주임은 마산서원열명을인솔하고 자동차로 갑작이출동하얏다

枕軌者의奇禍

칠월삼십일일오후십일시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케이백칠십삼호렬차가 병영(兵營)울산(蔚山) 대구리컨 삼십삼킬로 사백메ー돌 부근을진행중 선로안에서 잠을자고잇든 사람(남자)을 발견하여 급히정거하려하엿스나 미치지못하고 갈니여 부상되엿는데 아즉그신원은 판명되지안엇스며 울산에서 응급치료중으로 생명은 구하게되리라 한다

天氣豫報
晴後曇

優勢한颱風은琉球東方海上에잇서徐徐히北西에進行하고高氣壓은日本東海上으로부터日本海를지나半島에뻐지고잇다朝鮮海峽東岸은曇其他는日氣가조흐나元山에는비가온다明日漸次로흐려질더이며더울터이다

昨日最高 三〇、七 同最低 二一、一 本日正午 二八、七

運動競技

暴暑와陰雨를征服코 崇仁商業 鐵脚隊入京
마라손、徒步團兩隊가

平壤崇仁商業學校生徒로 組織된金剛山徒步旅行團과平壤一元山一京城一平壤間一週長距離마라손選手는 지난七月二十二日午前九時本報平壤支局前을一齊히『스타ー트』한지十日만에 昨三十一日茶褐色으로變한 씩씩한얼굴을本社압뜰에 낫타내이엇다

徒步隊는途中 中和 黃州 沙里院 興水院 劍拂浪 金川 開城 長湍 汶山等地에서各各一泊한後 午後二時入京하고 마라손의二選手는平元道路를다름질하야 元山에이르러 다시京城까지千餘里를走破하고同六時十二分入京하엿다 一行은壯途에오른지十日만에해여젓든學友를서울서맛나여다갓치즐거운하로밤을지나고徒步隊는一日午前十一時半本社前을出發하야目的地金剛山으로向하엿고 마라손選手는 하로동안休養한後明朝平壤을向하야 出發할터이다 一行의 氏名은다음과갓다

▲마라손選手 韋崇德(四年) 洪正燮(四年) 韓龍河(自轉車隨行)

▲徒步隊 姜璟求(引率者) 卓鍊達(四年) 羅炳德(四年) 李根述(四年) 朱懷翰(四年) 尹在烽(三年) 宋綻宸(三年) 朴重華(四年) 金昌遇(三年) 裵錫午(敎員)

海外스포ー츠·뉴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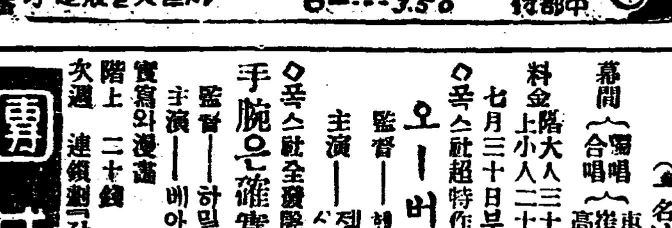
拖腹絶倒할 不具者蹴球戰

【마드릿드發聯合郵信】 西班牙의 首都『마드릿드』의不具者스포ー츠맨으로된 『木脚軍』과 『다리나라軍』은 失業者救濟基金을 募集하기爲하야 蹴球試合을行하엿다 원악不具者만의蹴球戰이라 非常한 人氣를集中하야 觀衆은場外에까지 넘칠만큼한것이엇다 『푸테어이』는 너나할것업시『목발이』『귀먹어리』뿐이오 『꼴킵퍼』는兩腕이업는選手 게다가審判 線審은모다가『벙어리』임으로 觀衆이아모리 떠버도모르는드시判決을나리는등 痛快無雙!! 結局6對2로『木脚軍』이快勝하엿다

入露하는土耳其選手
◇蘇聯스포ー츠界觀察◇

【哈市赤系워스독紙】『스탐불』運動協會長『페우레트·에딤벨』氏가以下土耳其運動選手三十八名一行은 『모스크바』·『레닌크라우드』·『하리코프』·『키에프』·『오뎃사』各市의『샤벳트』스포ー츠를觀察하고 同時에競技에參加하기爲하야 一個月滯在할豫定으로入露하엿다 昨年度土耳其蹴球選手一行이入露하엿을에에는 露西亞側이 得點四로勝利하엿스나 今年度의土耳其軍은 全部가年齡十九乃至二十一歲의新進精銳選으로 이번試合은 大接戰이잇슬것으로期待된다 最近土耳其는 스포ー츠奬勵에 만흔힘을쓰고잇스니各學校에서는 特히 스포ー츠普及에全力을 다하고잇다 그中土耳其에獨特한山嶽隊『아르피니스트團』은 各地에組織되어잇스며 乘馬 徒步 長距離 競技를猛烈히하고잇다 이번에入露하는選手『쎄피후』君과갓흔이는 百米競走에 10"4秒의記錄을 가지고잇스며 高飛選手『하이단』君은 一米.八六센치의記錄을 가지고잇다 外國에서 『발칸·올림픽』에서 斷然優勝한 記錄을가지고잇스니 말할것도업다

公認서울아一式



學校用運動具 蹴球靴 黑 白 色 五圓五拾錢 (蹴球)一號 A……5.50 B……5.00 C……4.50 (第四號) 特……4.50 A……4.00 B……3.50 中部付 京城公平洞 서울運動具製造所 振京五〇四〇番

中西テント 京城驛前 中西テント 電本二八四八番 振替京城一二〇七六番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京城 朝鮮 (營業案內贈呈)

京城金弘琯內科醫院 內科チストマ도질十二指腸虫채독 科專門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番

產金家의福音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金 金銀 地金 分析 壽 合資會社 杉山商會

男女淋疾의靈藥 治淋球 定價 五十個入 一圓 百個入 一圓八十錢 百八十個入 三圓 患者諸氏여 言論보다効果에事實이證明된다 効力의有無는試用後에知하실것이오 用法禁忌等은說明書에詳記 製造發賣元 京城南大門通四丁目 救世藥館 電話本局二九六九 振替京城二二六九 此外製品四十餘種 貳錢郵票보내시면 割引票及規則書付呈

漁具 投網(四分目 二等 八十圓 五分目 一等) 極上綿絲製各種 長三間 幅六尺三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漁具卸商 秋岡商會 電話本局四三九〇番 振替京城一二一五六番 定價表進呈

夏季男女學生大募集 全學費大割引 公認 南大門自動車學校 (學則申込次第送呈)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大漢門隣)

第一劇場 七月卅一日낫부터 每日二回 낫一時 밤八時十五分開映 大衆料金 階上 十五錢 下階 十錢均一 ◇메도로社提供 大喜劇 戀愛騷動 全五卷 고스다·메구만氏主演 가련한다...은여러가지를보고 ◇메도로社提供 喜劇 珍型移動住宅 全二卷 스납부호라ー드氏主演 ◇메도로社提供 大活劇 마지스테의사새스 全八卷 바루도로메사가ー노氏主演 幕間 金光子孃 獨唱 特別出演 伴奏 第一劇場專屬짜쓰밴드

朝鮮劇場 八月一日(火曜)브터納涼公開 全發聲映畵! 週間의로쉬인려네 大超特作 監督 리피알드아이배드로氏 戀焰 全九卷 妖姬안나 메이온 主演 助演 一죠ー지 시ー분 露西亞와中國國境사이에 一身을犧牲하는 女子의이야기!! 大雄篇 監督 헨리ー킹 疾風武者 全七卷 快漢 케네스하ー란氏 決死的快演 喜劇 하무와라미온 全卷 幕間 凉味 少女軍舞踏

優美館

朝鮮劇場 八月一日밤부터 大衆料金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特別納涼週間 第五週 喜樂座所演脚本 正喜劇 그림葉書 全一幕 李景洲 指揮 와즈쎈드舞臺演奏 新加入 와즈떤쓰ー 金綾子 小君 林白丹 姉妹出演 獨唱 仙粉 金峯子 劉桂 熱演 幕開트레와라언 金用浩案 人情悲劇 梧桐나무 一幕二場

中央館 新興キネマ本夏特別提供 一日特別封切 階下大人卅錢 階下小人廿錢 入江プロ超弩級傑作品 原作 夫馬修 脚色 末坊城恭長 監督 阿部豐 補導 溝口健二 新釋 須磨の仇浪 全十五卷 主演 入江たか子 一回應援 岡田時彦 特別出演 結婚は女性の天國か!墓場か! 彼女の投じた波紋は实に大なる疑問符となつて我々の再檢討を促しつゝある!彼女は果敢弱き女だつたのか!金權と男權との封建奴隸的二重搾取の泥沼に陷る女性の悲劇を……近代女性の眞理を取扱つた而も新しい角度からなる須磨の仇浪…… 新興キネマ初夏特別提供 寬齋郎プロ本年度第二回超弩級時代劇 雜誌『少年俱樂部』所載 原作 大佛次郎 監督 並木鏡太郎 主演 嵐寬壽郎 前篇 山を守る兄弟 全十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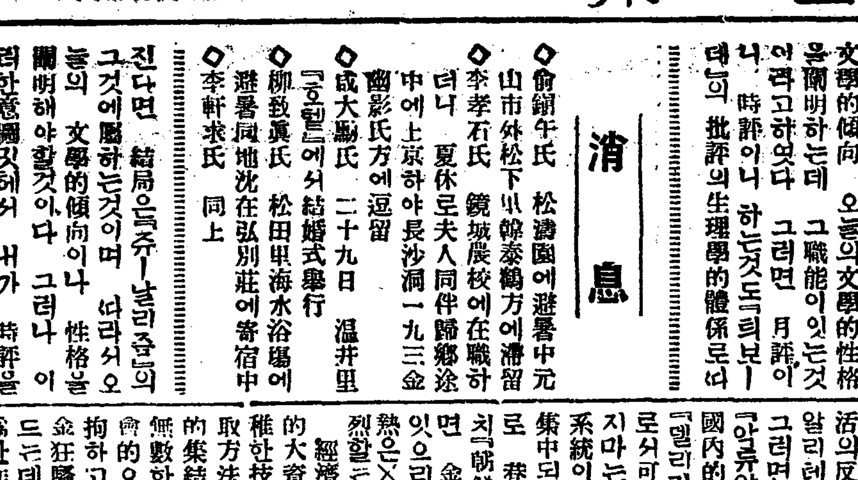
團成社 七月三十日부터全部交換 新舞台夏期納涼興行 ◇歡龍雲作 悲劇 미친이노래 全一幕 ◇任曙昉作 諷刺劇 엥여라차行進曲 全二幕 ◇石臥佛案 喜劇 三父子打鈴 全一幕 幕間 獨唱 車紅女 康福淑 合唱 進仙 全景希 高龍女 料金 階上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 小人十錢 七月三十日부터大公開 ◇폭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오ー버ー드힐 全十卷 監督ー헨리킹그氏 主演ー젠스렌氏 샤라아이라스氏 ◇폭스社全發聲映畵 手腕은確實하냐? 七卷 監督ー하밀톤맥파덴氏 主演ー베아도라이스리리氏 實寫와漫畵 階上 二十錢 階下 十錢均一 次週 連鎖劇『장화홍련전』

世界文化史先驅 9
太宗大王과 銅製活字의 創始
朝鮮人의자랑活字文明 (五)
文一平

◇人類의文明이 오늘날에 이르른것은 思想을 傳達하는 말과글이 잇는 때문이며 말과글에 활개를 치게된것은 印刷와活字가 생긴뒤의 일로 글은 말을 延長하는데 그妙用이 잇다면 活字는 다시 글을 延長하는데 그妙用이 잇다할것이니 이로보면 活字는 진실로 表現의尖端을 거러온 文明의利器인바 그의發明으로 해서 얼마나 人智가 大進하엿는지는 近代開化의由來를 적이 짐작하는이는 누구나 다 잘 알바어니와 그러면 과연 活字는 어떤 經路를 거쳐서 어느種族이 發明하엿는가하는 世界文化史를 論함에 잇서서 看過하지못할 아주 重要한 史實의 하나로 이活字發明의 榮譽로운 月桂冠을 차지한이는 現代文明의 支配者인 저歐米種族이 아니오 東洋種族이며 東洋種族中에도 조그마한 半島民族인 朝鮮人이어서 朝鮮人이 文化的으로 자랑할것은 世宗의 發明한 正音의發明과 아울러 世界에冠絕한活字의發明이다

◇活字가 생기기 전에도 勿論 印刷란것이 잇서 적지부터 佛經을 박어 내엇는데 비록 그年代는 알수업스나 적어도 高麗以前으로 推定할수 잇다 高麗에 드러와서는 발서 印刷術이 크게進步하야 藏經의雕造를 보게되바 거기對하야 여러說이 잇지마는 가장 信憑할것은 시방부터 九百年前인 高麗第八代 顯宗二年에 雕造한藏經이 第一回이며 이것이 그後 高宗때 蒙古兵火에 타버리고 同王廿三年 西紀一二三六年에 이르러 다시 大願을發하야 國家의힘으로 藏經의 雕造를하게 되것이 第二回이다 經板은 八萬六千六百八十六枚요 이部 大千七百八十卷으로된 엄청난 佛敎의 結晶이라 할만한 世界文明의 大叢書로서 高麗에 드물도업는 絶寶이며 오늘날 海印寺에잇는 藏經板은 곳 이高宗때의 再雕한 그것이다 佛敎國인 日本에서는 藏經을 몹시 貴重히 녀여 使臣을 朝鮮에 보내여 그것을 請求함이 무릇 여러번 이엇스며 그리하야 西紀一三九八年에 李太祖께서 日本 足利將軍에게 藏經의 一部를 주기 시작함으로부터 同一五〇一年 燕山朝에 이르기까지 百餘年동안에 前後十八回나 藏經이 日本에傳授하게 되엇다

◇그런데 이 藏經再雕의 바로 二年을 압선 高宗二十一年甲午 西紀一二三四年에 鑄字로 詳定禮文二十八卷을 박어 내인 일이잇스니 이것이 오늘날 알려진範圍에서는 活字의 嚆矢이며 시방부터 約七百年前이다 그러나 詳定禮文을 박어낸것은 麗末 恭讓王四年에가서 書籍院을두고 鑄字를 鑄造하야 書籍을 박어내게한 高麗史에 明言한것에依하야 그것이 活字인것은 의심할 餘地조차 업스나 다만 무슨活字인지를 모르겟다 그러나 高麗가亡하고 國朝가 일어나 모든秩序가 整頓되매 第三代太宗三年 癸未 西紀一四〇三年에 이르러 鑄字所를두고 銅으로 글자를만드러 書籍을 만히박어 널리 펴치니 이것이 正史에 나타난 銅製活字의 처음이며 朝鮮뿐만 아니라 大地上 金屬活字의 元祖이다



學藝
HOW TO READ EZRA POUND

最近의創作評 (1)
稀薄한 액튜알리테
李源朝

『알베ㅣ르·티보ㅣ데』는 그有名한 『批評의生理學』가운데서 『쥬ㅣ날리즘』의批評은 오늘의 文學的傾向 오늘의文學的性格을闡明하는데 그職能이잇는것이라고하엿다 그러면 月評이나 時評이니 하는것도『티보ㅣ데』의 批評의生理學的體係로따진다면 結局은『쥬ㅣ날리즘』의 그것에屬하는것이며 따라서오늘의 文學的傾向이나 性格을闡明해야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意圖밋헤서 내가 時評을試驗할때 나는 갑작이두가지難關에부드치는것이다 첫재는 이 오늘이란것이 時間上으로隔絕되지하로로서 생각될수업는것임으로 오늘을 問題삼자면 엇더한意味로서든지 어쩌게란것을 想定하지안을수업는理由밋헤서 내가 臨時로 이時評을 쓰기위해서 所定한七月中의創作篇을 涉獵하엿다고하드라도 나와갓치 近來의作品에對해 比較的親交하기어려운形便에잇는사람으로서는 오늘을闡明하는데의 한想定的資料로서어쳐의모든事情에對해서 그다지明細한觀察을 가지지못하엿다는것과 둘재로서는 비록내自身 不幸은 아니라하드래도 내가通讀한範圍內의 七月中의創作은 作品그것이 벌서『악튜알리테』를가진것이 거의업다는것이니 이事實은 내가批評하려는 作品을읽어본讀者는 누구라도 同情으로서가아닌共鳴을할것이다 이것은 조금餘談갓지마는 文學이란 社會生活의反映인以上 더만히『악튜알리테』가反映되어야할것이다 그러면 오늘의朝鮮에잇서서의『악튜알리테』는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나 非常히複雜하고『멜리카ㅣ』하여서 文學的槪括로서可能한것이 얼마라도잇겟지마는 오늘날 朝鮮의全神經系統이 全般的으로 興奮되고 集中된곳은 鑛山일것이다 실로 巷間에도라다니는 말과갓치『朝鮮사람은 滿洲로가지안으면 金鑛한다』는 嚴肅한諷刺가 잇으리만치 朝鮮사람의 金鑛熱은××當年의××熱보다더熱烈할는지도모른다

經濟的沒落期의 投機慾獨裁的大資本의進出과 小資本의幼稚한技術과의交替 따라서 ×取方法의合理化 勞働者의大量的集結 窮細農民의離農等等의 無數한 錯雜한 關係가 金融的으로 經緯되여잇음에도不拘하고 新聞의 三面記事는『黃金狂騷曲』이니 무어니하고 떠드는데 명색이 우리들의 有爲한作家들조차 自己네의 文學的寶庫라고할만한 이鑛山을 中心으로한 全般的社會的事實에對해서 요략케도 씨슨듯이 無關心한것은 아모리 생각해도 모를일이다 이것은 내가 近者에 切實히 느기는것임으로 特히 이機會에 所感을말하는것이나 누구든지 우리의 榮譽잇을作家는 이事實에 對해서 着眼할必要는 업슬는지?『鑛山小說』이라고해도 決코 興味만을 剌戟하는 일홈은아닐것이다

그러면 다시 作品批評을하겟으나 文學도더위를타는지七月中의作品은 첫재數爻부터적으며 그中에도 戱曲이 大部分이고 小說이 至極히적은것은 亦是 한奇現象일는지도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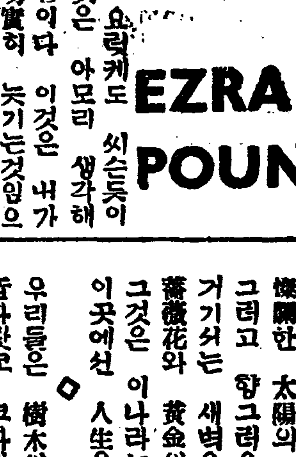
貯水池 韓雪野作 (新階段)

이作者는 面識도업고 作品도 읽어본것이 거의업스나同誌六月號에 『秋收後』(?)라는 小說이 繼續物로실렷다가 어진理由인지 中斷이되고 同誌七月號에 亦是 이作物이 繼續으로 連載되는모양인데 一回分만보앗으니 엇더타고 具體的으로는 말할수업스나 지금 活動하는 作家中에서 가장優秀한作家의하나이아닐는지모른다 그러나 이作品에잇서서는 다만 印象으로서 作品의內容―더구나 人物들의對話―이 現實을 넘어친感이업지안은가?한다 어이튼 나는 이作家를 尊敬하지하고 십흐리만치 作家的素質을가젓다고 생각한다

消息

◇兪鎭午氏 松濤園에避暑中元山市外松下서韓泰鶴方에滯留
◇李孝石氏 鏡城農校에在職하더니 夏休로夫人同伴歸鄕途中에上京하야長沙洞一九三金爾影氏方에逗留
◇成大勳氏 二十九日 溫井里『호텔』에서結婚式擧行
◇柳致眞氏 松田里海水浴場에避暑同地沈在弘別莊에寄宿中
◇李軒求氏 同上

우리들의國土
랑스톤휴ㅣ지쓰



우리들은 太陽의 나라를 가진다
燦爛한 太陽의
그러고 향그러운 물의나라를
거기서는 새벽은 부드러운 허검의 손수건이다
薔薇花와 黃金의―
이곳에선 人生은차단다
그것은 이나라는아니다
◇
우리들은 樹木의잇는나라를가진다
놉다랏코 크다란 나무의
그것은 햇벗처럼 화려한
재잘대는 鸚鵡들이 추기는―
그것은 이나라의 일이아니다
여기서는 새들은 잿빗이란다
◇
오ㅣ우리는 喜樂의나라를 가진다
사탕과 깃붐과 술과노래의―
그것은 이나라가아니다
이곳에선 깃붐은 그릇된것이란다

이詩人은『아메리카』의 左翼雜誌 『뉴ㅣ맷시즈』에時別히寄稿하는 黑人詩人이다 이詩에서도 보는것과가티 그는 그의理想의 나라를노래하면서도 거기는 내집을 일코 異域에서 彷徨하는黑人들의 鄕愁가숨어잇다 그는月前에 露西亞를 것처서東京에왓다가 方今露西亞에 잇는 佐野碩土方與志等의 紹介狀을가지고서 左翼文士들과 맛나서 密議를하엿다는理由로 退去命令을밧고 『아메리카』로 쫏겨갓다 (사진은=휴지쓰)

林和에게주는 ―나의抗議― (3)
金南天

나는여기서 作品『물』이 한개의藝術文學이아니며 眞實한『푸로레타리아』作品이 아니며 그것은 가장 危險한傾向에合流하여잇다는 林君의批評을 조금도 否認하고저하는것이아니다 나는 그것이『너넘어』는 鬪爭의炬火』속에서 淨化되여야할것을 千番도萬番도是認하는것이다 그러나 『너넘어』는 鬪爭의炬火』는 林和的創作評과는 因緣멀은 그것이며 創作評을 作家의實踐과 分離하야 論述하는 一切의傾向과 닷투는것과 鬪爭한것임을 나는 또 여기에서 말하지안으면안될것이다 林和는『물』속의 人物을一面的人間 生物學的 人間이라고 指摘한다 그것은至極히正當하다 그리고『물』속에는또 한面의積極的인것이 그려잇지 안타고말한다 이것도또한 至極히正當한指摘이다 그러나所謂 ××의눈을 避하야나오는 作品이라는 先入見업시 作家가 이것을 썻다고 본는것은 아모러한 正當한理解도안을 『大衆』에 쏙發表되도록썻다 나는 이作品을 쓰면서 過誤를 摘發하지안으면 안된 는것이다 다시말하면 金八峰 兪鎭午의『연장을수그리라』流에 되여잇슴을 말하지안으면 되는것이다 그리고또한 金南天이 스스로 兪鎭午를批判하면서 自身이 이러한過誤를 犯한다는것의解明은 依然金南天의世界觀의不確固, 金南天의實踐生活에 依據되지안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물』에對한 批評에

消極的이나 積極的이나 讀者에게 發表하여서 이것을

消極的이나 表하여서 이것을 讀者에게 알기위주는 것이 利롭으리라 生覺하면서 썻다 實로그것이 林和에게 好評을 밧는다든가 惡評을 밧지안는다든가를 目標로 하여쓴것은안이엿다 그럼으로 『물』의作家가 單純한 卑俗한 消極的인『리아리스트』로 始終하엿다는 過誤를指摘함에는 作家가 作品

잇서서는 林君이 多分히興奮을늣기며 쉬나간것도 事實인듯십다 그것은『물』의 첫머두리에 쓴말에對한 不當한理解에서 안이라 人物『물닥당』에對한 을치못한理解에서 發露되여잇다

첫머두리의말은『물』에對한生物學的要求를 强調하기爲하야서가 안이라『물』이라는 言句를 들음에에 누구나聯想할수잇는 한幅의『이류ㅣ존』을暗示하기 爲하야서이다 『그런意味에서가안이라 물은우리들과특별히 떼일수업는인연이 잇는듯십다』라는句節에서

批

評家林和는 果然人間의물에對한 動物的慾望만을 理解하는가?이句는斷然히 林君도引用한『이러케 물이말줄알드면 수통을드려대일에 종실컷먹을걸…』을 中心으로한 한節과 絕對的인 關聯밋헤잇는것이다 이것을 批評家는正當히理解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물닥당』을罪惡的人間으로 轉化하엿다고指摘한것은 正當한理解일가? 안이다 그릇된指摘이다 林和는말한다『大體웨 選出된그는 물먹는것을 制限식힐가?』 林和는至極常識以下의 質問을發하고잇다 엇던集團에서 엇던組織에서選出된責任잇는役員이 自己의맛흔바일에充實하고저하여行動하는것이 林和에게는 疑問으로써보혀지는것이다 『물닥당』은 그房안의××에서 물을調節하여쓸責任을맛헛기때문에 물마는것을制限한것이다

그러

면林和는 다시『웨實際』을 問할것이다 그房안의××들의××은 물을 要求하지안코 물을調節하여쓰도록 다시말하면『그들의生活을 그들이 當하고잇는××制度에 適應식히려』고 하는가? 그러나이것도非常히常識的인質問이될것이다 웨이야하면 作品속에서본바와갓치 그들의力量은 非常히弱하얏스며 또한엇던時期에이르기까지는反抗하는代身에『適應』을가지고물을調節하지안으면 안되기때문이다

批

評家林和가 資本을拒否하며 否認하는思想의所有者이면서 그가그의주머니속의돈을拒否하지못하며 『캄푸』가當然히就하여야할問題를 알두고 이러커리망서리고잇는것은 實로『力量』의問題가안이엿든가? 萬一『캄푸』의一員이 異現하여 全혀個人的인이나的 行動을取한다면 그것이現制度에對한××에서 나와다는理由에依하야 書記長인林和는 그를傍看한것인가? 또書記長이 그것을바엇다고 그는現制度에 適應식히려는 思想의所有者라고하여 그를罪惡的人間으로몰울것인가? 『물닥당』을重要한 人物의하나로서設定하고『外交』를맛허보는등等의 人物을한가지로登場식히것을 ××犯의生活의階級性을暗示하는것으로보아달나다면 그것은作者의엉터리업는要求일가?이것은『아마 作者도意圖하지안은무서운結果』(林)가안이라『물닥당』을 罪惡的人間으로 몰려는 批評家의 意圖한善良(!)한結果일것이다

展望
몽파르나쓰의 最後의날

巴里의『몽파르나쓰』는 일즉이는 祖國에서버림을 밧거나 그러치안으면 祖國의 文壇에대한 憤激과 憎惡를 참지못하야 巴里로 亡命해온文人과畵家들의거리로서 有名하다 그래서 아마도이 거리처럼로맨틱한國際的 居留地는 업슬것이다 일즉이米國人『유ㅣ진쫄라쓰』가 主宰한『트란사숀』誌도이곳에根據를두엇고『라이더쓰』의『디쓰리뷰』誌는 물론한동안찬란하던 『류란쓰』에를 『랜릭리뷰』도이거리의所産이다 그래서 이거리는마치 全世界의 藝術的異端者의 總本營인듯한감이잇섯다 그런데 요사이와서는 아거리에 난데업는『밤노리런』가 三十餘집이 생겨서『콕텔』『파자즈』의 狂騷亂과騷音으로 인하야필경 이거리의새 오래인住民인 藝術家들은 보집을 우러가지고 차츰차츰 다라나버렷다 特히 이거리의 오래인 特色이오 또한 世界에일홈이 國籍을 둔 藝術家들이 밤을 새워가며 藝術에對하야 討論하던 高尙한『카페』들이 갑작이 노리터로改造되여 아주 賤薄한 구렁으로化하엿다 그中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잇던有名한『프랑소아코페의카페』조차아마도문을닷칠모양이다 넷날에 詩人 『코페』는 밤마다 이『카페』에와서는 동무들과 藝術을 이야기하고 人生을 말하엿다 그래서그가죽은후에 그집主人은 그를 記念하기위하야『카페』의 일홈을 그의 일홈을 쏘차 부친것이엿다 지금藝術의 거리『몽파르나쓰』에는 넷날의氣分이자최업시 차라저서 亂雜하기짝이업다고한다

콩트
牧師 (二)
柳坊

병석에 맘나붓흔듯한사지에 의와갓치 배만이솟흔병인에게는 복부의항고를 나추기위하여 식물이라고는 조밥과소곰밧게는 먹일것이업섯다 귄신을 맘니우면서서지 쥐백혈구의기능을 일흔 피는 오몸의담백질과 지방을 모다 복막으로 글거모하서 조밥과소곰밧게는 맛볼수업는병인의위장은 작고작고 고기를 요구하는것이잇섯다 약할대로 약하여진병인의몸은 참을성잇지 도 일케하여오십년가인이 서 살난애와가티 고기를달라고보채엇다 물론복막염환자의 고기달라는창을 들어줄수는업는것이다 고거를배라고 좋을때마다『오 만 나두고기』하고 예닯아예쓰는 어린자식을 내여노코는 오집안이 돌아안저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는리유를 타일러서 얼니고 무짓기를 일을삼엇다 그러나 리성과자제력을완전히일코 쌋징과 떼여진고집만이남은 병인은『아,고기만먹으면 살어날것갓해―』이러케 금시에 한말은 니즌듯이『인케 암만해두 죽겟는걸 먹구 섯흔고기나 먹갓구나―』이러케 좋으고 좋으다가 자고 연은참고 참엇다가 하는말이라는드시『흥고기를 먹으문 해롭다구? 돈이 업지―』『아이구 하나님소사』이러케 소리를 지르고는 그쉬커드러간 눈자위에서눈물이 소사흘으고 맘나붓흔사지가 소스라처 떨니도록 늣겨우는것이엇다 이럴때마다『원 아이두 안이고 뻔연히 알면서―』말을 채맛추지못하고 참을수업시울고야마는것이엇다

×

이밤에 오는비는 눈이 되기에는 아직일르달지 몰으나 실어스발에 엉기안영우헤 떠러지는비스발은 무거웁게 요란히들니엇다 바람소리조차별노업시 비스소리 비스소리밧게 멀리비스소리밧게거리에서 떠러저잇는 목사의집방안에서는 병자의신음소리와 비스소리만이 들니엇다 그후에 바람이―대지를 뎀허쏘아나리든비스발을 한칼로 베어드시 삼시간에비는끈치고 바람이 불기시작하엿다 도적동을 가지고 밧게 나갓든 작난꾸러기 어린아들은 참새몃마리를 주어가지고 방안에드러와서 회로스불에 그것을굽기시작하엿다 그것은 집오래에 섯든나무에 깃드렷든 참새무리가 갑작이 오는 비와 맹렬히부는바람에 날개를 펼사이도업시 짓흔나무닙과함께 떠러젓든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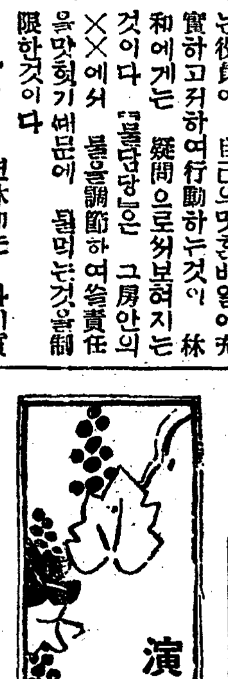
×

좁은방안에 고기내새는 가득찻섯다 고기에 굼줄엿든 어린자식들은 참새고기를 다토아가며 먹으면서―광야에 굼줄여 헤매이는 이스라엘족속에게 눈과갓치 나리든 마나와 이참새와갓치 하늘에서 뫼추리가 떠러젓다지!―이러케 어린그들은 언제인가 져희들의아버지가 강단우헤서하든설교의한구절을 니야기하여가며 한상 고기가먹고십다든 병든 처희의어머님에게도 권하기를 낫지안엇섯다

목사는 두무릅을 안고눈을 감고안저서 멀거니 그모양을 바라보고잇섯다 사십년이나광야에서 먹을것이업시 헤매이든 당신의백성에게 하나님이 눈과갓치 떠내리우는『마나』와 뫼추리고기를 맛잇게먹고잇든 그광경을―그는 꿈이안인현실에서 바라보고잇는것이엿섯다

조곰후에 울음으로 변할운명의우숨을 누가예측할것이며 예측한다손 누가 그우숨을――병든어머니와 그어린아들들의줄거운그우숨을――쌔앗슬악마가 잇섯슬外? 다만 폭풍우뒤의울산과 밧게는 어두움만이 흐르고잇섯다

―끗―



朝鮮新劇運動略史
새時期를그은 土月會첫公演 (3)
孫煒斌

그리고 이보다압서 亦是一九二二年二月에 平壤에서 玄聖完 康貞烈 劉秉鎔 禹文峯外諸氏가『兄弟座』라는 新劇團을組織하고 第一回 興行을鎭南浦에서 出發하야 全朝鮮의 坊坊谷谷을 巡廻興行하엿는데 그때의藝題는在來의것과同一한것으로『兄弟兵士』니『六穴砲强盜』이라는것 따위로서 조곰도 새로운맛이업는것이엇다 그러나 當時에 全朝鮮的으로演劇熱이 昻騰하여 各地方에서 群小劇團이 爭先하야 簇出하는同時에 巡業의 新派團은 到處에서 盛況을 이루엇다

◇―◇

그런만안이라 當時의 所謂新劇이 在來의舊劇形態의古殼을 完全히 脫出치못한재로一般的으로 普遍化되려는 氣分이 充溢되어 各地의 靑年會또는 耶蘇教會等에서 年中行事로서 素人劇을 上演케되엿스며 都會留學生의 歸鄕期에는 그여히演劇을 賭物로하엿든것이다 이것들은 勿論 한個의餘興的意味의 素人劇에不過한것인만큼 爲先 技術的으로보아 擧論할수조차업슬만큼幼稚하기짝이업는것이다 文化的生活을 片鱗에도 低觸되여보지못한 朝鮮一般民衆의 한社會的慾求의 表現이라고 볼수잇는것이며 將來의 朝鮮의近代劇發展의 過渡的現象으로서 朝鮮近代劇運動으로의 조흔誘導의役割을 한것이되엿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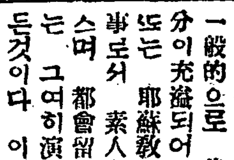
◇―◇

그리하자 一九二三年 五月에 東京에留學하든 一群의進步的學生인朴勝喜 金基鎭 金復鎭 金乙漢 李瑞求等諸氏가專門的으로 舞臺藝術을 研究하고演劇運動을 實踐하여보겟다는생각으로 東京에서『土月會』라는團體를 組織하야가지고夏期休暇에朝鮮으로 나왓든것이다 그리하야그들의活動은 朝鮮近代劇運動史上에잇서 從來의所謂新劇의 舊套를一掃하야 新劇의새로운側面을 보혀주엇다는點에서 一大異彩이엇스며 朝鮮新劇運動에잇서 한줄기의光明이엇다

그리하야 京城市內에 事務所를두고 그들은 第一回公演의 舞臺稽古를밟고자 同伴한延禧年李霽鳥附氏와갓치 公演準備를하야 會員을募集하고 女俳優로서 李月華 李惠卿 李貞姬諸孃을 入會식히어 陣營을 整頓하는一方街頭要處마다 看板을設置하고三色『포스터ㅣ』를各處에懸揭하엿다 朝鮮에잇서 飛車內에『포스터ㅣ』를懸垂한것은 土月會를嚆矢로하야 이로부터始作하엿다고한다 그럼으로 이에隨伴하야 더욱히演劇을疎忽히看過치안이하든그때의 一般民衆의 注目과期待는 決코적은것이안이엇다

◇―◇

畢竟 이러한가운데 七月四日저녁에京城에서 最大의映畫常設館이든『朝鮮劇場』에서第一回公演은開催되엇다藝題는『熊』『쒸나ㅣ드·쇼ㅣ』의『그男子가그女子의男便에게 무엇이라거짓말을하엿는가?』朴勝喜作의『吉植』이엇는데첫재로 無舞裝置에잇서서든가 俳優의演技에잇서서든가 演出方式에 잇서서 全般을 通하야 從來에 잇서서보다 決코 그리優秀한것이 못되고 다만 日本留學生의演劇이라는 一般的好奇心을 잇을어 第一夜에는 空前의盛況을 이루엇섯스나 第二夜부터는 觀衆席이 寥星하여지지안흘수업는 失敗의結果를 내고 말엇다 (계속)



林巨正傳 (152)
洪碧初 作
具本雄 畵

황텬왕동이 一의二

텬왕동이가 박갓방에 나와보니 길막봉이가 와서 석정이와 이야기하고 안저잇다 막봉이가 석정이를 형님이라고 불으는까닭에 텬왕동이는 넌지를 따저서 자긔도 형대접을 바드랴고하나 막봉이가 곱은곱은하게 아우노릇을 하지아니하야 둘이 서로만나면 작난으로 형아우를 다투는터이다 텬왕동이가 방안에 들어서며 첫말에

『동생 왓나』

하고 우스니

『총각이 어른에게 버릇업시 못하는법이야』

하고 막봉이도 역시 우섯다

『총각은 나이두 업는냐』

『총각나이는 똥구녕으루 먹지그련』

『예 이자식』

『요말구 어서 이리와안저』

텬왕동이가 자리에 와서안즈며

『내가 얼른 혼기집이라두하나 어더야겟소』

하고 석정이를 몰아보니

『형님이 힘을 써주어야 하지안쏘 말리지안는것만 장사루아우』

『내가 힘을안써서 장가를못가 말련』

석정이는 가볍게 대답하얏다

드니』

『그럼 내가 병신이라 장가 못드우』

『맛당한데가업는걸 넨들 엇지루 어떠케하나』

『맛당한데가 업는지 조선팔도를 다뒤저봣소』

『나더러 팔도를 돌아다니며 호처를 구하라말이냐 그건 못하겟다』

『인제는 형님을 밋구잇지안을테니 고만두시오』

남매간의 수작을 막봉이는 우스며 듯고잇다가 텬왕동이를보고

『노총각이 몸에 벗적 닳엇군』

하고 비쥭거리니 텬왕동이가 말따구하기전에 석정이가

『노총각이라구 빈정대지말아 잘못하면 우리남매의 상하겟다』

하고 엄벌 우섯다

『진주는 엇분색씨가 만든걸 이덕에 나하구 한번 가치 갈까』

하고 막봉이가 텬왕동이의 말을 자어버엇다

『진주는 언제갓다왓나』

『지금 진주서 오는길이여』

『엇재 갓섯서』

『우리 셋재형이 진주가서 살게되어서 보러갓섯서』

『이사 멀리갓네그려』

『동집장사 동무 반연으루 가서살게되는모양인데 오래살게 될른지 몰으지』

『언제 또갈라나』

『색씨를 돗보러가자면 언제든지 가치가지』

『이자식아 실업슨말 고만두어라』

『말버릇두 고약하다 누구더러 이자식저자식하나』

『동생더러 자식이라구한건형의잘못이니 동생 용서하게』

『또 긔급마질 형이야』

『진주남강 조치안튼가』

석정이가 막봉이를 보고 말을 물어서 막봉이는 텬왕동이와 실업슨말하든 것을 쓰티고 석정이를향하야

하고 대답하얏다

『촉석누나 팬찬치』

『형님 진주가보신일이잇소』

『수차 가밧네』

『셋재형은 살기조쿠 놀기조타구 진주자랑을 굉장하게 합듸다만 나는 조은줄 몰으겟습듸다』

『사람사는데는 대월반여지 별루 조은데가 어듸잇나』

『별루 조은데가 업스니까 나는 합고개가서 누어먹구지내지요』

『손쉬방이 두구먹기 성가시다면 엇더케할라나』

『날 먹이기성가시다구해요뒤덕에 먹구살게되엇기에』

텬왕동이가 말겨들 들엇다

『동네놈들이중에 장긔잘두는 사람이잇댓지』

『나버텸 차하나 센사람이잇서』

『자네버텸 차하나가 세면 법두는작긔야 내가가서 한번 대궁을 해봐야』

『오늘 나하구가치갈까』

『아무리 나하세』

석정이가 막봉이더러

『오늘살려나』

하고 뭇고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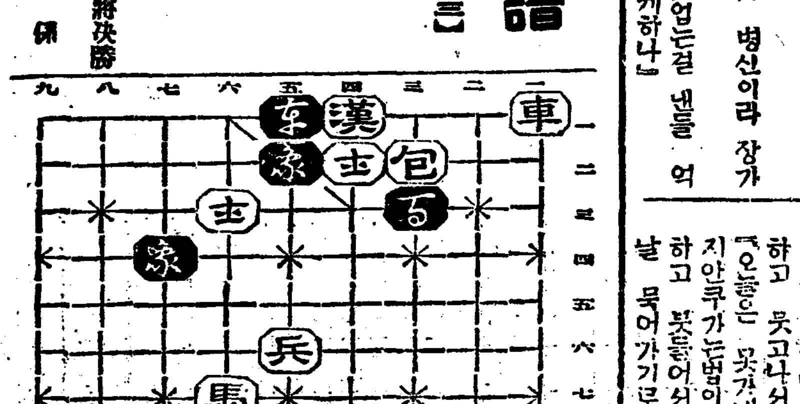
『오늘은 못가네 하루두묵지안쿠가는법이잇나』

하고 붓들어서 막봉이는그날 묵어가기로하얏다

博譜
【解答 三】

六二[illegible]―六三呼將
五二士―六三
三二[illegible]―四三呼將
四二士―四三[illegible]打
四五[illegible]―三三呼將
五四包―三三
三六[illegible]―五三[illegible]將
六二士―六三[illegible]打
七二[illegible]―五二包打將決勝

恭 博 保



멍텅구리
第1篇 記者生活
―43―

産期다처온羅津港巡禮記 (三)

勞働者의不足

賃金은如前低率不免

羅津支局 海嘯生

【厚昌洞採石場】(續)

그리고 이漁崗右角에서시작하여 防波堤를자흐리라고한다 이것은 風浪이甚한때에배에돌을수업는不便을 防하기爲함이라고한다 그러나 뒤에他組某氏의말을들으면 防波堤를築造하는것은 이地方을 永久히 有利하게使用할目的으로因함이데 自己의推測에는 이곳에 造船所를設할것갓다고 한다 이말들의正否는 엇지되엿던지 何如間防波堤를싼키로한것만은 事實인모양이다 工事費는 그들은말하기를어떠하는모양이엇다 第一期工事費는얼마나 되느냐 하는나의무름에對하여 다만十八萬圓술되는모양이라고 한번어엿다 그러나 至日羅津으로들어오는船上에서 某丁場의關係者某氏로부터는 六萬八千圓이라는말을들엇다 어느말이올흔지모르겟다

現在作業勞働者는 約七百名(內에女子約百名)인데 賃金은「목도」군이九十錢 普通雜役이七十錢이고 그리고鑿孔賃金은尺으로計算하는데 이것은그들은位置에따라서 一定치안으나 통처말하면一尺에對하야二十二錢乃至十八錢으로 하루에最下七八尺 最上으로는十二尺外자들는다하나 (그러나鑿孔은혼자라는種類가업는것은아니나 大槪는二人의一組로하는것이라한다) 九十錢乃至一圓一二十錢되는셈이다 女子들의賃金은三十五錢乃至四十錢인데 少女는二十錢으로 二十五錢乃至三十錢이라한다 勞働時間은午前五時부터 午後七時까지인데點心時間으로 一時間二十分을與한다고하니 純然한勞力時間만도 十二時間四十分이나된다 이럿한 만흔勞働時間임에도不拘하고一日七八十錢이나 三四十錢의勞賃이라는것은 진실로놀랄그대로이다

그래도 이工事場은다른工事場에比하여 賃金으로보나 待遇로보나 훨신낫다고한다며 賃金도 다른工事場보다는 만히주는便이고 勞働時間도 始業은五時라하나 大槪는五時半이되여서 나가도일업다고한다 그리고監督及는什長들의 勞働者에對한言動도 悖惡하지는안타고한다 이것은勞働者들도是認하는것이엇다 그러나그들ㅣ勞働者ㅣ의말을들으면 이러한現態는

雇主側

의勞働者에對한理解나 供給情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 勞働者가不足한으로 萬不得已하랴는術策下에서 그러한것이라고한다 即北朝鮮開發만엇고 工事가만흐니 사람들은 工事場을차저 여러곳으로 아니라 그後鐵道工事其他小工事들이 떠러지게되엇다고는하나 賃金이엇킹나게 됨으로 (五十錢六十錢等이엇다)大部分되지안흐니 다시勞働者의供給은不足을告하고잇는形便이라는것이다

이採石工事는 長門組가經營하는것인데 어長門組에서 請負한것이 小杉 小泉 K三氏에서 다시小杉 小泉兩組가「시다우케」하여 小杉 小泉兩組는 개풍거리區를半分하여맛고 K組는新津區를마타서한다 이K君은 過去二十餘年間 鮮滿와露領에서 民族運動에社會運動에 몸을던젓든사람으로그의足跡이 거이안간데가업스리만치 東閃西忽하든

熱情의

所有者이엇다 그가몃해前에歸鄕하여故鄕咸州에서 金鑛을한다는 말을들엇더니 그는이제또 工事場에나타낫나 이K工場은 小杉丁場 小泉丁場과 아울러 厚昌洞工事場에 君臨하고잇다

(次는) 採石場에所用되는다이나마이트運搬光景)

農作豫想과環境不良

쌀갑은안오르는다

順氣가繼續되면 一層低落難免

政府買上이나바랄뿐

三十一日의期米市場九月限納會價는東京二十二圓五十二錢 大阪二十二圓〇九錢에不出하야고期取仁川市場도十九圓十錢인今年來最新低價로 低落이엇고 今一日十月限新甫發會도 格付로보아 大阪은甘五十丁當地는百丁와上鞘로發會되어야할것인데 大阪은 겨우六十二丁 仁川은 겨우 十一丁의上鞘發會에不過하얏고前場步調는 多少强調이엇스나 이로써大勢强이라斷定키어렵을다 如斯하日本과朝鮮各地米價가不勢인것은

一、供給力이豐富하야端境期에 一千萬石의持越이豫想되는것

一、蓬萊米가出廻인것

一、朝鮮米의進續的拂下가잇는것

一、買方이敗退하야出動의氣力이업는것

一、天候가順調로서豐作豫想인것

一、株式等環境事情이不透明한것

等諸原因이錯綜한때문이오 就中 天候順調로因한豐作豫想이最大原因이다 特히朝鮮은 二千萬突破의勢로 未曾有의豐作豫想이 等 市場은 買人氣가萎縮되어잇서 順氣가繼續되면 더욱低落될것가타야政府가 買上出動치안는限落潮阻止가至難視되는터이다

米價의不當下落 防止資金貸出

産組中央金庫서計劃

【東京】 米價가昨年의倍額이되어도米價가떠러지는限全般的農村景氣好轉은日本이나朝鮮이나期待할수업다 從하야今秋十一月에實施할新米穀法에多大한希望을가지고잇는터인데日本外에는産業組合中央金庫도이米穀法改正의趣旨를쏘차自己資金에依하야一種의米穀投賣防止資金이라고도할正租와玄米의貯藏資金貸出을計劃하고目下具體案을急히하고잇다고한다 期限은一個年利率은五分가량의低率이오範圍는可及的擴大한方針으로다만農倉入庫米에만限치안코地方의篤農家及又는地主의倉庫도特別히契約하야融資하고農家의自力統制에依하야米價의不當한下落을阻止코저한다고

棉花輸入激增으로 下旬出超大減退

但重要商品輸出好調

【電通三十一日東京電】 七月下旬의對外貿易은輸出六千三十七萬圓 輸入五千三十萬八千圓出超一千六萬二千圓으로 前旬에比하야約二百萬圓 前年同旬에比하면約九百餘萬圓의減退를示하얏다

本旬出超가如斯히減退된所以는上半期의棉花輸入이四十二萬五千擔으로 前旬의輸入보다約十九萬擔이激增한때문인데 輸出의重要商品의傾向을보면 生絲綿織物의出超는依然好調를示하고잇다 即生絲는前旬에比較하야二百二十六萬圓 前年同期에比하야六百八十九萬圓이增加되고 綿織物도前旬에比하야八十三萬圓 前年同期에比하야八十三萬圓의增加를示하야 이로서 棉花의決定輸入數量이一段落되면他輸入이急增할形勢도업슴으로常分輸出貿易은 好調를繼續할것으로보인다

北鐵納付金 二三日中假調印

北朝鮮鐵道委員에件한納付金問題를委管交涉最後의問題로外務定委員會에서 決定을急히하고잇는데 滿鐵鐵道局兩委員의意見이一致된模樣으로 一兩日中에吉田鐵道局長이今井田政務總監을訪問하고 交涉經過를報告하야 總督府의意見을決定하고滿鐵代表者로서 入京中인村上理事間에假調印을行할것으로假調印은二三日中에行할모양이라한다

關東州、附屬地 爲替管理法案

相當緩和手段

【聯合東京一日發】 關東州와滿鐵附屬地에 施行할爲替管理法案의大綱은 三十一日午後大藏省에서 審議되엇는데 다시四日爲替管理委員會를開하고諸問한後最後決定을보리라한다 右案은그骨子가 日本內地의것과同一하나 다만 關東廳에서同地의特殊事情에依하야相當히緩和手段을取할것으로問題가되어잇는朝銀券은外貨로看做치안코內貨로看做하리라한다

世界第一인 猪島「굴」

將來대단有望

「굴」의養殖適地로서 世界的의稱이잇는咸南道永興灣內猪島의養殖成績을調査키爲하야 出張中이던 總督府水産課鄭技手는 三十日歸任하얏는데 如左히말한다

猪島가「굴」의 繁殖地로서世界的稱이잇는것은 灣內全體가石灰質의成分으로서 地盤이되어잇슴과 各河川의流入이 조흔때문이다 「굴」繁殖에는當最하다 또南朝鮮地方은 繁殖後二年을經過하지안으면 採取가不能한데 當地는 一年乃至一年二、三月이면 採取가可能함으로 目下水産興業會社의 經營으로國費補助를受하야 事業을하고잇다 將來는대단히有望視된다

京畿道서斡旋한 小麥共販良好

京畿道斡旋京畿道內開豐 坡州 漣川 抱川 楊州 水原 安城의七郡小麥共販은一手買受會社製粉會社에五千石의賣約을成하얏는바七月末까지의賣約은七千五百石에達하야豫定보다五割의取扱增이되어成績이자못良好하다 其他의郡도右七郡同樣「豐粉」側에서原料手當一巡으로買中止하고잇슴으로處分難이深慮되리라한다

期米取引의 振興策協議

朝鮮內各取引所의取引所振興調査會는 八月四、五兩日午後一時부터銀行集會所에서開催하고各取引所理事長이參集하야總督府關係局課長臨席下에主로期米의取引振興策에關하야 實情에卽한觀點으로協議研究後臨席當局에陳情키로되엇다한다

日本不作으로 朝鮮苹果進出

◇大活況豫想

全國苹果市場의大半을 占하고잇는森青苹果는 今年은害虫其他天候不良等으로 半作이라는近年稀有의不作이 豫想됨으로日本苹果市場은 秋出廻期를압두고 朝鮮産苹果에期待를가지고잇는一方 鎭南浦를비롯하야朝鮮生産者側及販賣側에서는多年翹望하고잇든 日本市場進出의絶好의機會라하야 進出策을講究하고잇는바 朝鮮에서는今年은 例年에업는大豐作으로滿洲方面의需要도 昨年보다增大될可望이잇서 秋期朝鮮苹果界는異常한活況이豫想된다한다

秋田縣과北朝鮮 定期航路開始

秋田縣에서도 朝日滿貿易을振興키爲하야 島谷汽船會社舟川寄港 北日本汽船會社와 北朝鮮各港과 定期航路에補助를나어서 舟川에 寄港케하야 元山의北朝鮮各港과 淸津 城津 西湖津 羅津 雄基 秋田縣과 朝滿과의取引을開始키에 至하엿슴으로 武部同縣知事로부터朝鮮商工會議所에對하야 周旋을依賴하얏다

朝信、土信買收 朝銀調查完了

朝鮮信託과 朝鮮土地信託과의合併問題는 朝銀의調査가完了되여裁定案을 谷朝信社長에게交付하얏슴으로 兩社代表가直接交涉케되엿는데 合併條件은右裁定案을 參考로서谷社長이作成하리라한다 그런데 難點은不動産의評價로이點은 雙方의主張에相當한差가잇슴으로 買收成立外지에는 迂餘曲折을難免할것으로 八月中에는 맛나볼意嚮이로오合併成立의機運은 濃厚하고잇다 朝信의買收資金에不足을生할時는拂込을徵收치안코借入金으로하리라한다

◇今日의市勢 ……(一日)……

株式	(朝取後場引値)	朝新 [illegible] 東新 一八八[illegible]
期米	(先限後場止値)	仁川 一八·五八 大阪 二二·七四
正租	(仁川一斤値)	改良 五錢四五 在來 五錢三五
正米	(仁川㊂三等)	一八·四〇
綿糸	(大阪後寄)	一九五·一〇
生糸	(橫濱先限後寄)	八一九·〇〇
人絹	(大阪先限後寄)	一〇一·九〇
고무	(FAQ一封度値)	先物 [illegible]
爲替	(對米)	現物 二七弗半
地金	(朝銀買値)	一匁 八·七〇

또셔러지는爲替

米日廿八弗臺割

卅一日紐育서廿七弗七五仙

東京廿七弗半賣唱

【電通紐育三十一日電】 米日爲替는米英의 小落에伴하야드듸어二十八弗臺를割하야二十七弗七十五仙에 大引되엇다 但一部부로가側에서는 八十七仙半을唱하야하다

【聯合紐育三十一日電】 本日의 米日爲替는十三仙低인二十七弗八十七仙으로 氣配가閑散하다

東京爲替市況

【聯合東京一日電】 一日 朝의東京爲替市況은如左하다

◇對米 買 二十七弗二分一 賣 二十八弗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十一 買 一志二片十六分十五

不勢傳하는 米國의市場

株式暴落

【電通紐育三十一日】 紐育株式은 鈍重하야需要의缺乏과 强硬賣로 低落하얏스며 스틸은二弗八分의三低 其他主力株는 大槪一、二弗內外의低値로 其中에는 十弗低를告한것도잇는바 低落의主要動機는 穀類相場의崩壞와 歐洲側으로부터의賣物이 國內의不作의報를厭倒한때문이라한다

米棉暴落

【電通紐育三十一日】 三十一日의米棉市場은 四十四포인트乃至五十一포인트의暴落을演하얏다 (日貨換算二圓二十五錢低) 이것은需要가實際의消費에참아리 加工税에依한買付原價의騰貴를 豫想한買溜에因한 人爲的의것이었이判明되어 買貿를減退케한것과 現物店、「江雲」는日本側等의盛賣한데依한것으로 이것에對하야 實需側의 價格支持는稀히弱하다한다

米棉民間 收穫豫想

千五百萬俵

【電通市俄古三十一日電】 크레멘트 카ー치스商會의調査에依하면 現在의米棉民間豫想은如左하다

作況 七割二分五厘

收穫豫想高 千五百萬俵

但右는 政府의減反計劃을考慮에入치안코 計算한것이다 從하야過般의農務長官의 言明대로其四分一이 減反計劃에依하야廢棄된다면 同期의豫想과大略伯仲이되리라한다

巡視船復舊新營 四萬七千圓通過

【電通東京三十日發】 航路標識巡視船火災復舊及新營費四萬七千圓은朝鮮總督府特別會計第二豫算에서支出할件은勅裁를經하야三十一日公布되엇다

商況 (二日)

株式 繼續低迷

前場 昨日東新九十圓臺를示한後 八圓五十錢의新低値를提示한後 痛手이 關門回復으로止場되엇던바 今朝日米爲替는二十七弗七十五仙으로二十五仙低를示하여스며 스틸에二弗低인五十二弗丁이며 米棉이亦是二圓二十五錢의暴落을呈한것이 嫌氣를招致하엿던지 今朝東京東新八圓三十錢大阪八圓七十錢寄를하고當地는 八圓四十錢에前寄하고 圓四十錢에寄付한後保合을繼續되여스며太新十圓十錢朝新三十하다가 阪引幾分高入을挨하고 當地東新도數丁上伸의八圓七十錢으로前引되엿고朝新은寄付同樣의四十錢으로大引止場되엇다

後場 前場에 軟價로止場되엿든바後場東新寄付九圓九十錢으로幾分强味를呈햇으나整理賣의殺到로市勢는다시下放되야結局八圓五十錢의高値寄低値引을示하엿스며朝新은寄不成引卅圓三十錢으로依然히無氣力이엇다

嫌氣益益增加 新甫依然落潮

七月에드러와서 市勢에多少의反撥變動은잇섯스나 大體로落潮一貫으로 繼續되여오던바昨日에至하야는結局東新九十圓臺가깨트러진데 市場心理또는鄙家側에서도 幾分 反撥도 업지안으리라고 推測한分이만핫스나內材로는 明年度의尨大한豫算이發表되야 國家財政의危機를聯想케하고 外材로日貨排斥의世界的蔓延은 依然展開될것안이라 米國財界回復도計劃대로如意히進行되지못하야 今日紐育電은日米爲替의續落 스틸株아나콘다株 米棉其他商品의暴落을示함으로 市場人氣는더욱險惡化하야 市勢는底不知的形勢로下押되며잇다

株界六感

×昨日百九十圓關門이깨어진東新은 前場東京低價가百八十圓臺

×원체로큰소리하지못할市勢이라肺患的으로맛스러질수밧게

×이러케되면以上低金利이니「인플레」니米國景氣反動一時的이니 어쩌니하야 억지로버텨어도안될것을買方이알어야할것

×八月이나九月에한번큰整理가나오고야말것가튼데 어떠지

×小反撥을맛고서 買치는못할일

一條希望은南米

奏効程度疑問

惡材料洪水에市勢는繼續暴落을呈하고잇다 日本貿易의危機切迫은누구나다認識하는事實이다 英帝國諸領地를爲始하야 和蘭白耳義土耳其 希臘等에서外지日貨進出을防止하며 獨逸佛蘭西市場에서外지 日本商品을驅逐하고잇다 그리하야 아즉日貨排斥이그러케甚하지안은곳으로오즉南米가 남어잇슬뿐이다 이問題로되어잇다 딸아서日本政府에서도南米政策에注力할은昨今더욱顯著하여젓다 日本과 南米諸國과의關係는더욱緊密하여왓다 特히經濟會議가失敗하야 日英經濟戰爭이開始된後 日本은 原料供給을 英國屬領에 求하는外에 威脅을感하고 印度濠洲羊毛輸入을離脫하야新大陸「아르젠친」羊毛로轉向할것이다 南米는「엉그로색손」과 敵國에反發하야 日本接近을歡迎할것이다 이가큰見解가 잇는模樣이나 南米는地理上또는 人種的으로 日本以外의 다른經濟勢力에屬할것으로 한편英帝國의 影響下에잇는일은 勿論이지마는그以上의 것이다 그러나現下日本形便으로는 希望이잇다면 그것은南米를 버서나지못할것이다

米期 發會初波動

前場 今朝阪地 二十二圓七十一錢인七十二丁上鞘로 新甫十限이發會되고 當地는二十一丁上鞘로十九圓二十一錢에新甫十限이發會되엿다 그런데當地의鞘는 阪地에比하야五十餘丁의下鞘임을말아 買物이俄然現出하야 阪地八十九錢으로返戻한을말아五十五錢外지 奔騰하더니結局 阪地七十錢으로反落하엿다가七十三錢에止場하얏으나 三十七錢으로 四十六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 阪寄二丁低인二十二圓七十一錢을擧하엿슴에不拘하고 仁川은 前場昇勢를다시繼續騰貴하야 六丁高인十九圓五十二錢에寄한後 軟步를示하다가 別段과如히大引止場되다

十限誕生되자 市中의買玉聲

新甫十限은二十一丁의薄上鞘로十九圓二十一錢에誕生되자市中에서는買玉聲이俄然澎湃하야一擧에三十餘丁의爆騰을示하엿다 그原因이何에在한가를窺하면阪地七十二丁上鞘에比하야當地는僅히廿一丁上鞘로五十餘丁의差異가잇슬뿐아니라 阪仁의鞘가三百五十丁外자擴大되엿슴으로此를機로한取鞘의買物이現出한모양이다 勿論値頃觀으로보아서買贊成을할만도하나 그러나環境의情勢가去益不良하야主力東新株가百八十七圓臺로瓦落되고米界의事情은무엇보다實米의壓迫이未曾有의弱材를醸出하는데가天候가또한好順을繼續하야豐作을豫想케하는關係로보아暴騰할餘力은少毫도업슬것가튼바此邊에서買方의絶對防禦으로瓦落을不許하야底入을낸다할지라도相當한時日을要하지안코는到底히上分岐를期待키難할것갓다

中先俄然擴鞘

薄上鞘發會後

今朝阪地十限은九限에比하야七十二丁上鞘로十限을新米建으로變更한後初有의大上鞘로發會되엿나 實際의新古米格差는一圓五十錢인만큼 적어도그程度의上鞘로發會할수잇스나大饑新米의氣分이旺盛한時期에入하는限月인만치 賣氣가얼마큼威壓을加하게되며 又는그해의稻作如何에도따한關係가업지아니할으로再昨年의五十四丁上鞘와昨年度의六十丁下鞘와 本年度의七十二丁上鞘는稻作의狀況如何를말하는것이며 當地로말할지라도再昨年은五十丁上鞘昨年은九丁上鞘本年은二十一丁上鞘로阪地七十二丁上鞘에比하야當地二十一丁上鞘인 五十餘丁의差의鞘는 朝鮮의農作을意味한다 그러나阪地의支配를밧는當地의薄上鞘에는 俄然買物을喚起하야 阪地發會後約二十丁의續高를作하야 一擧에十九圓五十五錢으로 中先의鞘는突然五十餘丁으로擴大되엇다 要하면 値頃觀의買物도업지아니할것이 此程度의 開鞘로持續될것가다果何如?

米豆餘話

越買로寄取 東京側의建 買步은異彩이며 地場强氣側中東側別派地場來客側瀨씨이買入하엿다

◇ 期米는 於是乎仁川側의九限은 於寄側中年格이되고 十限兒가繼代하야바로碎玉觀을일으지지며 誕生조흔限月이다

◇ 此限이야말로 端境期의주권을 쥐고 分水嶺을넘어新米밭을 거게되는 눈入字

◇ 此限을中間에두고 싸우는兩軍의形勢가자못緊張하야 勝負를決하려하나 此限의自動으로向할바를누가알랴?

◇ 新穀期의一千萬石持越도 硬派로서의큰問題이거니와 頭上의天候가 買方을應援하지안는데야奈何

◇ 그야그런이라 環境의情勢가또한不良하야 株式界가漸次軟弱함을보면 賣方의得意時代는이로부터到來!

◇ 엇쩌든間直接의材料가如是하고서는 暴騰을許하지는못할러이니 賣方은持久戰을繼續하기만不如

各地正米

▲京城軟化 淸算新甫上鞘가生하고人氣는比較的良好이엇스나繼續良好의伸力不足으로市勢는㊂三等八圓四十錢四等八圓三十錢으로十錢假量軟化하엿다

▲仁川弱含 新甫는浮動을翻覆하고잇슴으로日本注文이 稍稍치안으며場面貿易側의傍觀에市勢는㊂三等八圓四十錢四等八圓三十錢으로十錢假量弱含

▲釜山不味 出廻二千五百叺淸算發會도意外로 無活氣한外닭에 正米도甚히不味하야場面 氣乘薄閑散商狀인데㊂三等八圓九十錢四等八圓七十錢으로不變商內千叺出來 大豆兄॥依然環境의低迷에活氣無하고手持側의廉價賣盡과買手躊躇에場面閑散不變唱

▲大邱伸惱 月替期임에不拘하고當用側의買氣薄으로市勢伸惱의㊂三等八圓七十錢四等八圓三十錢으로不變唱

▲群山反落 出廻無一般拂下의結果待로月初이나閑散한터인데期米不振에딸아市勢는㊂三等八圓六十錢四等八圓五十錢으로十錢乃至十五錢假量反落

▲木浦暴落 出廻三輛天候恢復에買氣衰弱한모양인데日本注文이殆無한데一方手持側이小口일망정漸次廉價에도手放함으로市況은暴落을演하엿다㊂三等九圓六十錢四等九圓三十錢으로品에依하야는四五十錢假量暴落

▲鎭南浦軟弱 農作槪況과新規入注杜絶에●地方仲買側의歸氣歸賣物에 市況은一段軟弱㊂三等九圓五十錢 四等九圓三十錢으로十錢低唱

堂島前場情報

【商通大阪發電報】 新月初인今前場 台灣側 東京側은乘換하고 正米側은 聚達株式側地場 目先師는實進에對하야 [illegible]

局鐵管內 米發送數量

七月二十九、三十日 單位叺

	本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元山	[illegible]	―	―
淸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朝取短期 (一日)

前場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	―	―	―
日新	―	―	―	―
安取	―	―	―	―
拓新	―	―	―	―
後場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朝取	―	―	―	―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	―	―	―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	―	―	―
日新	―	―	―	―
安取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	―	―	―

朝取短期賣買高 / 算定代引日步

銘柄	算定	日步	代引	收逆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亞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不	[illegible]	[illegible]
日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逆	不	[illegible]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現株

銘柄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朝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日石	[illegible]

東京短期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東新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前場	寄付	大引	高價	低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銘柄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 釜山期米 / 朝取期米 / 東京期米 / 朝鮮各地期米 / 日本各地期米

(當限・中限・先限 各節 前場・後場 相場) [illegible]

京城正米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同 四等米	一石	[illegible]
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百瓩	[illegible]
正租 上・中・下	一斤	[illegible]

本期總數 合計 [illegible]

仁川正米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同 四等米	一石	[illegible]
無檢査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六十瓩	[illegible]
在來正租	一斤	[illegible]
改良正租	一斤	[illegible]

仁川大豆

羅山大豆	一石	[illegible]
長湍大豆	一石	[illegible]
金川大豆	一石	[illegible]
海州大豆	一石	[illegible]
天安大豆	一石	[illegible]

朝取取組高 / 朝取各限價合 / 朝鮮金買入價 / 對外爲替 / 海外砂糖 / 滿洲商況 / 鰮搾粕冲値 / 鰮油冲値 / 京城綿糸布市勢 / 大阪砂糖 / 大阪人絹 / 橫濱生糸 / 大阪棉花 / 大阪綿糸 /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朝鮮銀行速報)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日本金利

東京 [illegible] (單位千圓)

京城手形交換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單位毛)

海外經濟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英米爲替	[illegible]
米日爲替	[illegible]
米綿	[illegible]
日綿	[illegible]
스틸	[illegible]
아나콘다	[illegible]